



[뉴스] (주)두산 대주주 두산중공업에 퓨얼셀 지분 증여 02



Economy

코스피	2625.91 (+24.37)	코스닥	874.53 (+9.41)
금리 (미국 3년)	0.981 (+0.010)	환율 (원/달러)	1104.60 (-4.30) (26일)



구광모 LG 대표 신년사 영상 모습.

/LG

“고객의 마음으로 실천”

## 젊어지는 LG, 40대 대거 발탁

### 구광모 체제 4년 'LG그룹 인사'

LG그룹이 구광모 체제 4년차를 맞아 본격적으로 구광모 대표만의 스타일로 선택과 집중에 나선다. 구분준 고문 중심 계열 분리도 마무리하면서 경영 안정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LG는 26일 2021년 그룹 정기 임원 인사를 발표했다. <관련기사 3면> 올해에도 CEO 대부분을 유임하거나 승진 조치하며 안정을 유지하면서도, 젊은 인재에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해 성장을 가속화하는 '안정속 혁신'을 이어갔다.

그러면서도 임원 인사에서는 구광모 대표 '실용주의'를 대폭 반영해 과감한 승진을 단행했다. 신입 상무가 124명,

이중 45세 이상이 24명으로 지난해보다 대폭 규모를 확대했다.

LG그룹은 고객에 대한 집요한 고찰을 바탕으로 민첩하고 유연한 대응 능력을 가진 젊고 추진력있는 인재를 중용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미래 준비 기반인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X) 영역에서 성과를 낸 인재를 중심으로, 융복합 기술 개발 등 기술 리더십 확보를 위한 R&D 및 엔지니어 분야 젊은 인재에 기회를 확대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LG는 이날 이사회를 열고 LG신설법인(가칭)을 설립하기로 결의했다. 신설법인은 구분준 고문을 대표로 LG상사 및 판토스 등 계열사와 LG하우시스, 실리콘웍스와 MMA를 품게 된다. /김재용 기자 juk@

# AI기업에도 '닷컴버블' 징조 80% 거른후 '제2아마존' 출현

## 2020 뉴테크놀로지 포럼

편향성·오류 등 AI에 거품 많아 3~4년 안에 '옥석가리기' 진행

인공지능(AI) 시장이 올해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AI에 거품이 많아 3~4년 안에 '옥석가리기'가 진행되면서 70~80% 기업이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 AI 성장의 이면에 AI 편향성, 오류 및 안전성, 악용, 개인정보 보호 문제, 킬러 로봇 등 부작용이 드러나고 자율주행차도 비용 문제에 직면하는 등 윤리적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가 '빅데이터를 품은 인공지능(AI)'이라는 주제로 25일 서울 중구 LW컨벤션 3층 그랜드볼룸과 웨비나로 온·오프라인으로 개최된 '2020 뉴테크놀로지 포럼'에서 강연자들은 이 같은 우려를 나타냈다. <관련기사 L6·L7면>

이경일 솔트룩스 대표는 "IT컨설팅 그룹인 가트너 그룹이 매년 내놓는 '하이프 사이클' 보고서를 보면, 2000년대



이경일 솔트룩스 대표가 25일 서울 중구 LW 컨벤션에서 메트로신문 주최로 열린 '2020 뉴테크놀로지 포럼'에 참석해 강연을 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닷컴 버블이 일어나고 테헤란로 기업의 70~80%가 망한 것처럼, 인공지능도 3~4년 안에 AI 기업 중 시장 검증 통과하지 못한 기업은 문을 닫고, 시장에서 인정을 받는 기업은 '제2의 아마존', 네이버와 같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3년 이내에 인공지능 기업이 경제적 효용을 보여야 하는데, 방법은 비용을 낮추거나 품질을 높이는 것, 속도를 개선하는 것"이라며 "국내 AI 시장에서 뷰노·루닛은 영상 진단 분야에서, 솔트룩스와 KT는 AI 상담·고객센터 분야

에서, KT와 수아랩은 스마트공장에서 가치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경전 경희대 교수는 "웨이모는 사람의 개입이 없는 완전 자율주행차에 고성능 라이다 센서를 사용함으로써 가격이 비싸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결국 웨이모는 소비자에게 차량을 판매할 수 없어 택시 서비스만 제공하는 문제에 직면해있다"며 "반면, 테슬라는 라이다를 안 써 가격이 싸지만 제품이 레벨2 수준으로 운전자가 참여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며 자율주행차의 한계에 대해 지적했다.

전창배 한국인공지능윤리협회 이사장은 "AI가 데이터를 중심으로 학습해 판단하다 보니 사립학교에서 시뮬레이션을 하면 좋게 나오고 공립학교는 나쁘게 나오는 편향성과 흑인, 여성에 대한 편견을 보여줬고, AI로봇이 오류로 사람을 공격하기도 했다"며 "AI 스피커 회사에서 개인 목소리가 유출되거나 AI 드론이 사생활을 침해한 사건도 있었다"며 AI의 역작용을 소개했다. 이에 따라 인류의 미션은 "선한 인공지능을 만드는 것이 됐다"고 강조했다.

/채윤정 AI전문 기자 echo@metroseoul.co.kr

## '코로나19 3차 대유행' 현실로 일일 신규 확진자 500명 넘어

전일보다 201명 늘어난 583명 서울서 208명, 경기 177명 등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 우려가 현실이 됐다.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전국으로 번지며 일일 확진자 수가 8개월만에 500명을 넘어섰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가장 심각한 상황이라며 방역 수칙을 잘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6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전일보다 201명 늘어난 583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00명대를 넘은 것은 신천지에수교를 중심으로 확산이 본격화되던 지난 3월 초 이후 처음이다.

특히 수도권에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 이날 서울 208명, 경기 177명 등에서 402명이 발생하며 수도권 확진자가 400명대를 넘어섰다. 서울 역시 200명대가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며 우려를 키웠다.

감염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젊은층 감염도 확산되고 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20~30대 코로나19 확진자 비중은 한 달 새 28%로 증가했고 인공호흡기

가 필요한 젊은 중환자의 수도 19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우리가 생활하는 어느 곳에서나 감염이 일어날 수 있고, 남녀노소 누가 감염되더라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이 됐다"면서 "3차 유행이 그 규모와 속도를 더해가는 시점에서 철저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더욱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방역당국은 확산세가 이번 주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거리두기에 동참하고 있어 다음 주 반전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면서 "이번 주까지는 확진자 수가 확대될 것으로 보지만 다음 주 정도 되면 반전 추이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한다"고 말했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논의는 아직 이르다는 입장이다.

손반장은 "수도권 2.5단계 격상 기준은 신규 확진자가 400~500명 계속 나오는 상황을 상정한 것이어서 오늘 격상을 말하는 것은 기준상 맞지 않고, 또 2단계 격상의 효과성을 판단하기 전에는 이르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lee@



코스피, 사상 최고치 경신 코스피 지수가 전 거래일(2601.54)보다 24.37포인트(0.94%) 상승한 2625.91에 마감한 26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865.12)보다 9.41포인트(1.09%) 오른 874.53에,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108.9원)보다 4.3원 내린 1104.6원에 마감했다. /뉴스

## 서울시-대한항공 '송현동 땅' 매각 합의식 돌연취소

### 매각관련 현장조정위, 잠정적 연기

이른바 '송현동 땅' 매각과 관련한 서울시와 대한항공의 최종 합의식이 행사 하루 전 돌연 취소됐다.

26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권익위 주재로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서울시·대한항공·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각 최종합의식이 잠정 연기됐다. 권익위는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매각 관련 현장조정회의'가 관계 기관 간 추가적

인 협의를 위해 잠정적으로 연기됐다고 전했다.

앞서 한진그룹은 '삼정KPMG-삼성증권' 컨소시엄을 그룹 유류자산 매각 주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며 대한항공이 소유한 서울 종로구 송현동 토지(3만 6642㎡) 및 건물(605㎡)의 매각을 추진한 바 있다.

올해 들어 확산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에 따라 대한항공이 경영난을 겪자 자구책의 일환으로 유류자산을 팔고자 한 것

이다.

그러나 지난 6월 서울시가 송현동 부지의 북촌지구단위 계획 결정 변경안을 공고하며 공영화 계획을 공표해 이 같은 매각 절차에 제동이 걸렸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서울시가 LH를 통해 송현동 땅을 '제3자 매입' 방식으로 확보하고 이를 시유지와 맞바꾸는 방안을 제시하는 등 지난 5개월간 양측의 이견을 조정해왔다. 현재 맞교환 대상 부지로는 마포구 서부순천리시립장 등이 거론된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

# 두산중공업 재무구조개선 위해 대주주, 퓨얼셀 지분 6000억 증여

주식 1276만주, 6063억원 가치  
내달 유상증자... 재무구조 제고  
“두 회사 사업 시너지 효과 예상”



두산타워

㉠두산 대주주들이 두산중공업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두산퓨얼셀 지분을 무상 증여했다.

두산퓨얼셀은 26일 공시를 통해 ㉠두산 특수 관계인들의 지분 23%를 두산중공업에 무상 증여했다고 밝혔다.

증여된 주식은 1276만3557주로, 25일 종가 기준 6063억원 가치를 갖고 있다.

두산중공업은 두산퓨얼셀 지분을 확충하며 재무구조를 개선하게 됐다. 오는 12월 유상증자를 완료하면서 재무구조를 더욱 제고할 수 있을

전망이다.

두산 관계자는 “두산중공업이 이번 지분 수증을 통해 두산퓨얼셀의 최대 주주가 됨으로써 두 회사의 사업 시너지 효과가 예상되며, 이를 통해 두산그룹의 친환경 에너지 사업이 보다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두산퓨얼셀은 발전용 수소연료전지

시장에서 독보적인 업체로, 국내 최초 액화수소플랜트 사업을 비롯해 그린수소 생산, 수소터빈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두산중공업은 두산퓨얼셀 연료전지 발전 기술을 확보하면서 친환경 발전 기술 라인업을 구축하고, 두산퓨얼셀은 두산중공업 EPC 역량과 글로벌 네트워크로 시장 확대 발판을 마련했다.

두산 관계자는 “채권단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두산중공업의 재무구조 개선과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을 위한 기반을 계획한 대로 마련할 수 있었다”면서 “두산퓨얼셀 지분 무상증여를 약속대로 이행한 것처럼 남은 재무구조 개선 작업도 차질 없이 진행 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은행 신용대출 금리 현황〉

(단위: %)/자료=은행연합회

구분	9월	10월	차이
BNK경남은행	4.62	4.62	0.00
BNK부산은행	2.79	2.85	0.06
DGB대구은행	4.01	4.18	0.17
광주은행	3.64	4.60	0.96
전북은행	6.42	6.48	0.06
전체 평균	4.30	4.55	0.25

## 지방은행도 금리인상 속도 풍선효과 차단, 대출 옥죄다

지방은행 5곳 평균금리 4.55%  
지난달 4.30%서 0.25% 올라

정부의 강화된 신용대출 규제(오는 30일부터 시행)에 앞서 대형 시중은행에서 선제적으로 대출을 제한한데 이어 지방은행도 금리 인상 등을 통해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은행에서 충족하지 못한 수요가 지방으로 쏠리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지방은행 BNK부산·경남·DGB대구·JB광주·전북 등 5곳에서 지난 10월 실행한 일반 신용대출 평균금리는 4.55%로 집계됐다. 이는 4.30%였던 전월 평균 신용대출금리에서 0.25%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앞서 7~9월에는 신용대출 평균금리가 하락했던 것과는 달리 오름세도 돌아선 것이다.

은행별로는 광주은행 0.96%포인트, DGB대구은행이 0.17%포인트, 전북은행·BNK부산은행이 각각 0.06%포인트 올랐다. 유일하게 BNK경남은행은 전월 평균금리와 동일했다. 지난 10월 대출 평균금리는 전북(6.48%), BNK경남(4.62%), 광주(4.6%), DGB대구(4.18%), BNK부산(2.85%)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평균금리가 가장 높게 상승한 광주은행은 신용등급별로는 금리가 오히려 떨어진 등급도 있었다. 그러나 금

리를 높인 ‘1~2등급’(+0.34%), ‘5~6등급’(+0.1%)에서 크게 오르면서 전체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금리는 원가가 되는 기준금리와 마진이 붙는 가산금리 등을 더해 산정되는데, 한 달간 기준금리가 하락한 경우도 있는 반면 가산금리를 적게는 2bp(1bp=0.01%포인트)에서 많게는 68bp까지 높인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금융권 대출 자제를 요청하면서 지방은행들 역시 대출 금리 인상으로 수요 억제에 본격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유는 시중은행에서 못 빌린 돈을 지방은행에서 충당하려는 수요를 선제적으로 줄이기 위한 조치란 분석이다. 대출 억제책이 발표된 지난 13일 이후로는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한 수요가 지방은행으로 몰렸다.

한 지방은행 관계자는 “신용대출 부분은 꾸준히 증가해왔는데, 특히 지난 규제 발표(13일) 이후로 신용대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고 전했다.

특히 지방은행에서 서비스하는 모바일 신용대출 상품의 최저금리는 지난달에는 연 1.9~2.8% 수준에서 최근에는 연 2%중반에서 연 3%초반으로 올라간 상황이다.

또 다른 지방은행 관계자는 “시중은행에 비하면 지방은행이 담당하는 신용대출액 규모가 크지 않은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당국에서 신용대출 규제 등의 시그널에 따라 조절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영석 기자 ysl@

## Digital **한류**를 선도하는 대학 서울문화예술대학교

2021학년도 신·편입생 모집

정시 1차 | 2020.12.01(화)~2021.01.15(금)  
정시 2차 | 2021.01.28(목)~2021.02.16(화)

### 미래문화예술계열

- 연극영화
- 사회체육
- 건축공학
- 시각영상디자인
- 한국어교육
- 조리
- 항공서비스
- 도탈미용예술
- 실용음악
- 모델
- 실버문화경영
- 반려동물
- 항공정비
- 항공보안

인서울 4년제  
문화예술특성화 대학  
대면/비대면 혼합교육

FUN 하게 배우고  
FUN 하게 졸업하자!

지루할 틈이 없다!  
시간가는줄 모르는 FUN한 수업이 있는 학교!



모델학과 19학번 남윤수  
2020년 NETFLIX  
<인간수업> 기태 역  
tvN <언어의 온도>  
이찬술 역

지하철 3호선 홍제 서울문화예술대역 3번 출구 3분 거리

문의전화 1588-7101 / 02-2287-0253~4,0373 홈페이지 ipsi.scau.ac.kr

## 코로나 피해 채무자 내년 6월까지 ‘상환유예’

금감원 ‘개인채무자 재기 지원’ 연장  
금융사 프리워크아웃 특례 ‘최대 1년’  
3곳 이상 금융사 채무자, 신용위에 신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득감소로 가계대출 상환이 어려운 채무자는 내년 6월까지 지원금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연체 우려가 있는 채무자는 가계대출을 받은 금융회사에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면 된다. 금융회사서 거절하거나

가계대출을 받은 금융회사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청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 지원 강화방안’의 적용시기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우선 개별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 신청 기한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 프리워크아웃 특례가 적용되면 6개월부터 최대 1년까지 원금 상환이 유예된다.

프리워크아웃 특례 대상은 코로나19 이후 소득 감소로 가계대출 상환이 곤란해 연체 우려가 있는 개인 채무자다.

지난 2월 이후 실직·무급휴직·일감상실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고, 가계대출 중 신용대출, 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 사잇돌 대출을 받은 경우 가능하다.

또 월 소득중 가계생계비(복지부고시 기준중위소득의 75%)를 차감한 금액이 금융회사의 월 채무상환액보다 적어야 하고, 연체발생직전부터 3개월 미만 단기연체만 가능하다. /나유리기자 yul115@

### 독자여러분들께 사과드립니다

메트로미디어가 ‘빅데이터를 품은 인공지능(AI)’이라는 주제로 25일 서울 중구 LW컨벤션 3층 그랜드볼룸과 웨비나로 진행된 ‘2020 뉴테크놀로지 포럼’에서 음성 송출이 원활치 않아 웨비나 시청자 여러분들께 불편을 끼쳐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이번 포럼의 전체 동영상은 유튜브 웹사이트(https://youtu.be/ivlrBmFf-G0)에 올라 있습니다.

# 구광모 '뉴LG' 시동... 나이·경력 대신 잠재력·전문성 중용

(LG 대표)

안정 속 혁신, 실용주의에 방점 미래성장분야 젊은피 대거 발탁 작년보다 대폭 늘려 181명 인사 45세이하 신규 임원 24명 중용

이번 LG의 2021년도 정기 인사는 구광모 대표의 '실용주의'를 대폭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미래 사업 분야에서는 과감한 승진 인사로 미래 먹거리 확보에 힘을 실어주면서도, 코로나19 등 위기를 극복한 최고경영진을 유지하면서 지속 성장 토대를 단단히 구축하는데 힘을 쏟았다.

구 대표는 최근 사업보고회 등에서 "고객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질적인 변화와 질적 성장이 중요하다"며 "미래 성장과 변화를 이끌 실행력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발탁·육성할 것"을 강조한 바 있다. 이번 임원 인사에서도 이같은 기초를 반영했다는 평가다.



김종현 LG에너지솔루션 사장 | 이명관 LG경영개발원 사장 | 이방수 (주)LG 사장 | 김희연 LG디스플레이 전무 | 여명희 LG유플러스 전무

올해 LG그룹 임원 인사 규모는 181명이다. 전년(168명)보다 대폭 늘었다. 앞서 LG그룹은 연중에도 외부인재 23명을 임원으로 영입하며 나이와 성별, 경력 대신 성장 잠재력과 전문성을 겸비한 인재를 중용해왔다.

새로 임원에 오른 상무는 124명이다. 45세 이하 신규 임원은 24명으로 지난해(21명)보다 더 많아졌다.

올해에도 1980년대에 태어난 임원이 3명이나 발탁됐다. LG생활건강 중국디

지털사업부부장 지혜경 상무가 1983년생으로 최연소다.

미래 성장 사업 분야에서도 인재 발탁에 힘을 쏟았다. 오는 12월 출범 예정인 LG에너지솔루션에서 새로운 임원 12명을, 오랜 어려움을 극복하고 디스플레이 사업 안정화 기반을 마련한 플라스틱 OLED 분야 임원 5명을 새로 뽑았다.

아울러 LG그룹은 경험과 노하우를 필요로 하는 생산과 품질, 영업 등 부문

에서도 전문성을 갖춘 인재에 중책을 맡겼다.

그러면서도 계열사 CEO 대부분을 유임하면서 경영 안정성도 지켜냈다. 오히려 사업과 스텝 부문에서 성과를 낸 최고경영자에는 승진을 조치하며 힘을 실어줬다. 이에 따라 올해 사장 승진자는 5명으로 지난 2년(1명)보다 대폭 늘었다.

사회 공헌 분야에서 인사가 두드러졌다. 우선 이방수 ㈜LG CSR 팀장을 사

장으로 승진 인사하며 사회 공헌 활동에 힘을 실었다. LG공익재단 정창훈 대표도 부사장으로 임명하며 힘을 더했다.

인재 육성 의지도 분명히 했다. LG경영개발원에서는 이명관 LG인화원장을 사장으로 선임하면서다.

여성 임원 승진도 역대 최다를 기록하며 여성 임원 확대 방침을 확인했다. 전무 승진이 4명, 신규 임원 선임이 15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올해 여성 임원은 특히 전략과 마케팅, 기술과 R&D, 생산과 고객센터 등 다양한 직무에서 승진해 실용주의 기초를 다시 한 번 증명했다.

LG디스플레이에서 김희연 상무, LG유플러스에서 여명희 상무와 김새라 상무가 회사에서 처음 여성 전무로 올라섰다. LG화학도 생명과학사업본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여성인 윤수희 전무를 뽑았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 구본준 고문 '홀로서기' 신설 지주회사 설립

LG상사 등 5개사 중심 분리 구광모식 '선택과 집중' 박차



구본준 (주)LG 부회장

LG그룹이 구본준 고문 중심의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며 계열 분리를 확정했다.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구광모 대표 중심의 안정적인 경영으로 '선택과 집중' 노력을 가속화할 수 있게 됐다.

㈜LG는 26일 이사회를 통해 (주)LG 신설지주(가칭)를 설립하는 분할계획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LG신설지주는 LG상사와 LG하우시스, 실리콘웍스와 LGMMA 등 4개 회사를 자회사로 편입하게 된다. LG상사 계열사들도 손회사로 신설지주로 이동한다. LG신설지주는 구본준 LG 고문을 비롯한 새로운 이사진을 구성해 독립경영 체제로 운영하게 된다. 구 고문과 송치호 LG상사 고문이 대표이사로, ㈜LG 재경팀 박장수 전무가 이사로 선임됐다. 사외이사에는 김경석 전 유리자산운용 대표이사과 서울대 경제학과 이지순 명예교수, 정순원 전 금융통화위원회 위원과 연세대 경제대학원 강대형 겸임교수를 내정했다.

LG신설지주는 내년 3월 26일 (주)LG 정기 주주총회에서 회사 분할 승인 절차를 거쳐 5월 1일자로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LG그룹은 급변하는 경제에 민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주사 사업 포트폴리오를 더욱 전문화하는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분할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주)LG는 전자화학통신서비스 영역에, 신설 지주사는 성장 잠재력을 갖춘 사업회사를 주력으로 육성해 기업 가치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구광모 대표 체제도 더욱 확고해질 수 있게 됐다. LG그룹은 그동안 경영진 세대 교체가 이뤄지면 형제는 따로 계열사를 분리해왔다. (주)LG 지분 7.72%를 보유하고 있는 구본준 고문은 구광

모 대표 취임 직후 부회장직을 내려놓고 경영에서 물러났지만 따로 거취를 밝히지 않아왔다. 이번 계열 분리를 통해 LG그룹 경영권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게됐다는 평가다.

아울러 LG그룹은 계열 분리로 2018년 취임한 구광모 대표의 '선택과 집중' 전략에 따른 사업구조 재편 작업을 3년 만에 일단락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LG 관계자는 "국내 대기업 최초로 선진형 지배구조인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LG는 지속적으로 사업 영역과 경영관리 역량을 전문화해 사업 경쟁력을 강화해 왔다"며, "향후 계열분리 추진 시 그룹의 지배구조를 보다 단순하게 하면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완화 방향에도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LG그룹은 신설법인에 편입될 계열사를 인적분할 방식으로 분할할 예정이다. 분할 비율은 (주)LG 0.9115879, 신설 지주회사 0.0884121이다.

분할 후에는 존속회사 (주)LG가 발행주식 총수 1억6032만2613주, 자산 9조7798억원, 자본 9조3889억원, 부채 3909억원, 부채비율 4.2%로 유동성을 대폭 확대할 수 있다. 신설 지주회사도 발행주식 총수 7774만5975주, 자산 9133억원, 자본 9108억원, 부채 25억원, 부채비율 0.3%의 건전한 재무구조로 출발한다.

/김재용 기자

### 원칙은 곧게 믿음은 곧게

금융이 지켜야 할 원칙  
고객과 지켜야 할 약속  
한국투자증권이 지켜갑니다

true friend

한국투자 증권

One  
Shinhan  
고객을 위한 하나의 신한

Shinhan  
미래를 함께하는  
따뜻한 금융

# 생각

이 — 어 — 지 — 다

# 행동으로

## 생각만 한다면 생각은 아무것도 아니다

빛나는 생각도, 앞선 생각도

생각에서 멈춘다면 아무 것도 아닙니다.

디지털이라는 변화, 언택트라는 큰 변화 앞에서

고객을 위해 은행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신한은행이 했던 수많은 생각들.

자라서 꽃이 되도록, 열매가 되도록.

고객의 기쁨이 되도록.

행동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도 고객 가까이.

당신의 신한은행이 되겠습니다.

## 생각. 이어지다, 행동으로 신한은행

말하시기 전에 알자  
마이케어 서비스

챙겨드리자  
MY 신용관리

원하실 때 만나자  
디지털트 브랜치

오시지 않아도 되게 하자  
STAB (찾아가는 서비스)

더쉽게 해드리자  
SOL 청약컨설팅

아껴드리자  
월납관리 서비스

편하게 해드리자  
전자문서지갑

# 정치인 출신 회장 깜짝 낙점 IFRS·신지급여력 등 난제산적

## 생보협회장에 정희수원장 내정

회장추천위 2차 회의서 단독후보  
2017년 문재인 대선후보 캠프 합류  
교보생명 출신, KB생명 사장 역임

생명보험협회 차기 회장으로 정희수  
보험연수원장이 내정됐다.

생명보험협회 회장후보추천위원회  
는 26일 2차 회의를 열고 정희수 보험  
연수원장을 단독 후보로 추천한다고  
밝혔다.

1953년생인 정 내정자는 경북 영천  
출신으로 성균관대를 졸업하고 한나라  
당·새누리당 소속으로 17·18·19대 국회  
의원(경북 영천·청도)을 지냈다. 2017  
년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  
보 캠프에 합류했고 2018년부터 보험  
연수원장으로 재임했다.

회추위가 정 내정자를 단독 후보로  
추대한 이유로는 금융당국과의 소통  
목적이 크다는 분석이다.

앞서 생보협회는 세월호 참사가 발



정희수 생명보험협회 차기 회장.

생한 2014년 이후 관료출신 낙하산 인  
사에 대한 비판 기류속에서 민간출신  
회장 선임을 유지해 왔다.

다음달 8일 임기만료를 앞둔 신용길  
현 회장은 교보생명 출신으로 KB생명  
사장을 역임했고, 2014년부터 2017년  
까지 재임한 이수창 전임 회장은 삼성  
생명 사장을 지냈다. 업계 내부에서 민  
간 출신 회장들이 이전 관료 출신 회장  
들과 비교해 금융당국과의 소통에 한  
계가 있다는 평가가 나오자, 관료 출신  
회장을 선임했다는 분석이다.

또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취업심사대  
상이 아니라면 점도 해당한다. 정 내정자  
는 지난 2016년 5월에 19대 국회의원이  
임기 만료된 이후 3년이 지나 대사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정 내정자가 취임  
할 경우 우선 처리 과정은 2023년 새 국  
제회계기준(IFRS 17) 도입, 신지급여  
력제도(K-ICS) 도입과 관련한 금융당  
국과의 소통이 될 전망이다.

IFRS17은 보험사의 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게 골자다. 보험  
사들이 결산시기마다 시가로 보험부채  
를 평가해 부채가 늘어나는 만큼 자본  
을 추가로 확충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코로나19로 저금리가 장기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IFRS17 시행 시 막  
대한 자본 확충 부담이 생길수 있다는  
것. 현재 과거 고금리 보장 상품을 많이  
판 곳 위주로 재무 위기에 처할 가능성  
이 제기된 상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번 선임으로  
위기의식이 팽배한 생보업계에 새로운  
돌파구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나누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우리카드는 카드의 정석 시리즈가 2년 8개월만에 800만장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우리카드

## 우리카드, '카드의 정석' 800만 좌 돌파

단일 상품 시리즈 업계 최단 기록

우리카드는 대표상품 '카드의정석'  
시리즈가 인기를 끌며 이달 24일 800만  
좌 돌파를 달성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성과는 단일 상품 시리즈로 2년  
8개월만에 달성한 업계 최단기간 기록  
으로, 매일 25만좌 이상의 상당한 발급  
좌수를 유지해야만 가능한 수치다.

카드의정석 시리즈의 인기 비결은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 패턴 변화를 반  
영한 맞춤형 서비스를 탑재해 고객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의 크기를 키웠  
다. 또한 트렌디하고 감각적인 카드 플  
레이트로 디자인 만족도를 높인 점 등  
이 꼽힌다.

카드의정석 히트에 힘입어우리카드  
는 신용카드 브랜드평판 지수에서 1위

를 유지해오며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  
고 있다. 특히, 지난해 6월 처음으로 1  
위에 오른 뒤 올해 11월까지 18개월 동  
안 1위를 지켜오고 있다.

지난 2018년 '카드의정석 POINT'  
첫 상품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신용카  
드는 24종, 체크카드는 10종을 출시했  
다. 우리카드 관계자는 “정원재 사장  
이 강조해온 ‘팔리는 상품’인 카드의정  
석의 성공을 통해 시장에서 강력한 브  
랜드 파워를 구축했다”며 “이를 통해  
우리은행 등 모든 채널에서 고객이 카  
드의정석을 직접 찾는 분위기로 바뀔  
수 있었고, 우카 마이너스론, 자동차  
할부 등 다른 금융상품 판매에도 시너  
지를 발휘하며 회사 수익증대에도 기  
여한 바가 크다”고 말했다.

/이영석 기자

# 코로나에도 카드사 해외법인 실적 '건조'

신한카드 4분기 3분기 순익 176억  
KB국민카드 4분기 3분기 순익 23억까지 급증  
우리카드 미얀마 전년비 74% 늘어

지난 3분기에 주요 카드사의 해외법  
인 실적이 호조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  
다.

26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가  
진출한 아시아 국가 4곳(카자흐스탄·  
인도네시아·미얀마·베트남)의 올 3분  
기 순익은 17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35억원을 기록한 지난해 같은 기간 보  
다 약 38.43% 증가한 것이다.

다만 법인이 위치한 국가의 코로나  
19 확산세에 따라 다소 실적이 엇갈린  
모양새다. 코로나 여파가 덜한 카자흐

스탄(유한회사신한파이낸스), 미얀마  
(신한마이크로파이낸스), 베트남(신한  
베트남파이낸스)에서는 각각 전년 동  
기 대비 각각 3억원(38.0%), 5억  
(254%), 47억원(38.43%) 증가했다. 반  
면 최근까지도 하루 확진자 수가 4000  
~5000명이 넘는 인도네시아의 '인도  
파이낸스'의 경우 3분기에 13억원 가량  
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법  
인의 경우 코로나19 충격으로 3분기 실  
적이 다소 하락했다”며 “당장의 손익과  
는 별개로 높은 성장성을 바라본 지역  
인 만큼 투자는 코로나19가 종식된 이  
후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까지도 전체 확진자 수가

300명대에 머물고 있는 캄보디아에 진  
출한 KB국민카드 현지법인은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다. KB국민카드의 캄보  
디아 현지법인 'KB대한특수은행'은  
지난해 3분기 순익이 2억원에 불과했  
지만 올 3분기 들어 23억원까지 급증했  
다. 반면에 지난 8월 자회사로 편입한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KB 파이낸시아  
멀티파이낸스'에서 20억원 가량의 순  
손실을 기록했다.

미얀마에 진출한우리카드도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다. 미얀마 현지법인 '투  
투파이낸스(TUTU Finance)'는 올 3  
분기 29억6000만원 가량 순익을 거두  
면서 전년 동기 대비 73.69% 늘었다.

/이영석 기자 ysl@

## KB국민銀, 디지털자산 관리기업에 투자

한국디지털에셋에 전략적 투자

KB국민은행은 한국디지털에셋(K  
ODA)의 전략적 투자를 통해 디지털자  
산 시장에 진출한다고 26일 밝혔다. K  
ODA는 해치랩스와 해시드, KB국민  
은행이 투자를 통해 설립한 디지털자  
산 관리기업이다.

KB국민은행은 가상자산이나 게임  
아이템, 디지털 운동화, 예술 작품, 부  
동산 수익증권,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CBDC) 등 디지털자산의 범위가 확대  
되고 서비스들이 가시화되면서 관련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투자했다.

장기적으로 유무형의 자산들이 디지  
털화되면 이들 자산의 안전한 보관, 거  
래 및 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금융 니

즈가 생겨날 것으로 예상했다.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의 실험을 통해 KODA  
를 디지털자산 시장의 은행으로 성장  
시키겠다는 전략이다.

해외에서는 미국 통화감독청(OCC)  
이 지난 7월 은행들에게 가상자산 수탁  
서비스를 허용했으며, 최근 동남아시  
아 최대은행인 DBS는 가상자산 거래  
소를 만들겠다고 발표하는 등 은행들  
의 참여가 시작됐다.

국내에도 내년 특금법(특정 금융거  
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  
률) 시행과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앞  
두고 있으며, 한국은행이 디지털화폐  
(CBDC) 도입을 검토하는 등 관련 시장  
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안상미 기자

## 대한민국 녹색경영대상 '국무총리 표창'



우리은행은 서울중구노보텔엠베서  
더 호텔에서 열린 '2020 대한민국 녹색  
경영대상' 포상식에서 국무총리 표창  
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녹색경영대상은 녹색경영확산을 목  
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가 공  
동으로 주관하는 정부 포상이다. 지난  
2006년부터 녹색경영 추진과 환경산업  
에 기여한 기업 및 단체, 유공자 등에게  
포상을 매년 수여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ESG경영의 일환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전기차 및 충전시설을 도입해

점차 확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해부터는 친환경 사회공헌활동인 '지  
구는 우리(WOORI)가 지킨다' 캠페인  
을 실시해 전 그룹사 임직원이 참여하  
고 있다. 이 외에도 지속가능채권 발행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포괄적 금융  
지원을 통해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에  
동참하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확산과 자연재해 증가로 자연과 인간  
의 조화로운 공존이 더욱 절실했다”  
며 “앞으로도 우리은행은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 부응은 물론 지속가능한 성  
장을 이루도록 더욱 많은 역할을 해나  
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영석 기자

## NH농협은행

### 연말 맞이 외화모음 이벤트

NH농협은행은 연말을 맞아 외화  
는 모으고 마음은 나누는 '2020 겨울,  
외화모음 이벤트 1+1=훈 훈~'을 내  
년 1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26일 밝혔  
다.

이번 이벤트는 환전 또는 외화예금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300명을 추  
첨해 파riba게트 1만원 모바일상품권  
을 경품으로 제공하고, 경품 금액만큼  
기부를 통해 결식우려 아동에게 행복도  
시락을 전달한다.

또 'SNS 행복 메시지 챌린지'를 실  
시해 12월에는 행복도시락과 함께 '응  
원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안상미 기자 smahn1@

## 신한銀 일하는 방식 혁신 '스마트 워킹 플랫폼'

장소 제약없이 금융서비스 제공

신한은행은 일하는 방식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스마트 워킹 플  
랫폼 앱인 '몰리메이트(MOLI-mat  
e)'를 새롭게 선보인다고 26일 밝혔다.

몰리메이트는 기존 기능별로 혼재돼  
있던 19개의 직원용 앱을 통합한 새로  
운 직원용 스마트 워킹 플랫폼 앱이다.  
업무 보조 수단으로서의 디지털이 아  
닌 일하는 방식을 혁신 하기 위한 디지  
털 전환(DT)을 추진하자는 진옥동 은  
행장의 의지가 반영됐다.

이 앱은 전 직원이 스마트폰으로 언  
제 어디서나 고객 영업, 내부관리, 교  
육, 준법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인공지능(AI) 지식관리시스템인 '몰



리'를 탑재해 직원들이 탁상감정가 조  
회, 전세대출 상품추천, 주택담보대출  
한도 조회 등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

또 상담 직원이 간편하게 금융상품  
을 가입할 수 있는 QR코드를 만들어  
고객에게 제공할 수도 있어 고객의 접  
근성 확대 및 업무 편의성을 개선할 수  
있게 됐다.

/안상미 기자

# 현대제철 '에이치코어', 프리미엄 내진강재 시장 '포문'

에너지 흡수력 높은 내진강재 친환경까지 포함한 브랜드로 확장 내달 2일 온라인 컨퍼런스 개최 고부가 자동차 소재 차별화 주력

현대제철이 브랜드 이미지 강화 마케팅을 확대하고 있다. 내진강재 브랜드 H-CORE(에이치코어)가 건자재 시장 프리미엄 강재로 자리잡은 가운데, 고객 맞춤형 자동차 소재 브랜드 H-SOLUTION(에이치솔루션) 등 다양한 브랜드를 새로 선보였다.

에이치코어는 2017년 전국민 대상 브랜드 공모전을 통해 이름이 붙여진 내진강재 브랜드다. '현대제철이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만들어 나가는 중심이 되겠다'는 의미로 명명됐다.

내진강재는 지진의 충격을 흡수해 지각의 흔들림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성능을 지닌 제품이다. 일반강재 대비 높은 에너지 흡수력·충격인성·용접성 등의 특성을 지녀 외부 충격으로부터 거주자의 안전도를 높여준다.

현대제철은 앞서 국내에 내진 강재 개념조차 정립되지 않았던 2005년부터 연구 개발을 이어가며 관련 시장을 개척해왔다. 이후로도 형강·철근·후판·강관 등 각 분야의 내진강재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관련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내진강재 알리기에 힘 쏟고 있다. 건설사뿐 아니라 TV와 라디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에이치코어를 알렸다. 특히 드라마 PPL로 에이치코어를

**H-Solution Technical Conference 2020**

HYUNDAI STEEL 1st online conference

20.12.02 (WED) - 20.12.10 (THU)

16:00(KST, Seoul) | 15:00(CST, Beijing)  
08:00(CET, Berlin) | 13:30(IST, New Delhi)

**DATE/TIME**

- Wednesday, December 02, 2020 | 07:00 GMT | 16:00 KST
- Thursday, December 03, 2020 | 07:00 GMT | 16:00 KST
- Wednesday, December 09, 2020 | 07:00 GMT | 16:00 KST
- Thursday, December 10, 2020 | 07:00 GMT | 16:00 KST

**Presentation**

- Automotive steel develop trend
- Introduction of H-SOLUTION
- Automotive Application Engineering Technology
- New Concept of Automotive steel development

**Registration**

Online conference page in H-SOLUTION webpage  
<https://ae.hyundai-steel.com>

현대제철 '에이치솔루션 테크니컬 컨퍼런스 2020'.

쉽고 편하게 소개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에이치코어 범위를 내화용 및 친환경 강재까지 포함한 철강 브랜드로 확장했다. GR인증과 LCA, EPD 인증 등으로 ESG 경영에도 적극 활용 중이다.

현대제철은 2019년 에이치솔루션을 통해 새로운 철강 브랜드 영역을 개척하고 있다. 에이치솔루션은 자동차용 소재 및 솔루션 관련 브랜드로, 전기차와 수소차 등 미래차를 선도하는 차세대 강관 브랜드다. 친환경적 초고강도 경량 차체를 실현한다는 의지를 담았다.

에이치솔루션은 글로벌 고객사에 현

대제철의 고품질 자동차 소재를 홍보하는 것뿐 아니라, 자동차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는 기술력과 서비스를 각인시키는 역할을 했다.

기술 마케팅과 고객 서비스도 강화할 수 있었다. 지난 1월 에이치솔루션 전용 홈페이지와 AE 서비스 포털을 오픈하면서다. 기술 지원 플랫폼뿐 아니라 제품·응용기술/강종인증/컨셉트 차체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한다. 웹사이트, 모바일 앱 동시 제공을 통해 고객과의 소통채널도 확대했다.

또 현대제철은 오는 12월 2일부터 4차례에 걸쳐 온라인 컨퍼런스를 열고 국내외 고객에 현대제철 자동차 강재

및 관련 기술력을 알린다는 계획이다. 주제는 '미래 자동차 소재의 전망' '필러 와이어 적용 TWB 핫스탬핑 용접기술' 등 첨단 자동차 소재 및 기술과 관련한 내용이다.

아울러 현대제철은 신강종뿐 아니라 탄소섬유강화플라스틱(CFRP), 알루미늄 등 비철 경량소재의 적용에 대한 선행연구와 친환경 자동차 소재 등 모빌리티 소재 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현대제철은 2019년 내마모강 WEA REX(웨어렉스) 브랜드와 신규강종 2종을 출시하며 고부가 자동차 소재 차별화에도 주력했다. 웨어렉스는 기존 제품보다 경도와 가공성을 크게 향상한

판재 제품으로, '외력에도 닳지 않는 철'이라는 의미를 품고 있다.

현대제철은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쳐 내마모강 시장에 선도적인 입지를 다져나가고 있다. 특히 웨어렉스가 차량뿐 아니라 산업용에서도 핵심 소재로 쓰여 브랜드 영역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올해에는 강도와 성형성을 높인 고강도강을 울트렉스라는 이름으로 새로 내놓으며 주요 고성능 제품들의 네이밍 체계를 구축하고 제품 인지도를 높여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울트렉스는 '외부 충격에 강한 단단한 철'이라는 의미를 지닌 고강도 강관 브랜드로, 자동차 내외판과 구조재 및 새시에 최적화된 핵심 소재다. MS강과 ACP강을 비롯해 미래 핵심 강종인 3세대 강 AMP강과 Q&P강 등이 개발 중이다.

특히 3세대 강은 기존 초고장력강보다 한층 높은 인장강도와 연신율을 보유해 높은 충격 흡수와 고성형을 요구하는 부품에 널리 쓸 수 있다.

현대제철은 앞으로도 웨어렉스와 울트렉스에 이어 내부식강/고성형강 등 주요 고성능 철강 제품들의 네이밍 체계 구축 및 브랜드화를 통해 고객 마케팅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브랜드를 통해 현대제철 제품의 차별화된 특성과 기술력을 적극 알리겠다"며 "철강업계 내에서도 브랜드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브랜드 마케팅을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 글로벌비스, 국내 최초 친환경 콜드체인 배송

SSG닷컴 배송차량으로 시범투입 1시간 급속 충전으로 150km 주행 온실가스 연간 1.96톤 감축 효과

현대글로벌비스가 국내 최초로 전기트럭을 이용한 친환경 '콜드 체인' 배송을 시작한다.

현대글로벌비스는 26일 SSG닷컴 신선 상품 배송차량으로 1t(톤) 전기트럭 1대를 시범 투입했다고 밝혔다. 친환경 전기배송차는 1시간 급속 충전으로 150km를 주행할 수 있는 모델이다. 냉장·냉동 물류 수송에 쓰이게 된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는 차체와 냉장·냉동칸 전기 배터리를 분리해 주행 효율을 높이고 화물칸 안정성을 제고했다. 단열 성능이 높은 설비를 탑재해 온도를 실시간 체크해 조절하는 모니터링 장비도 설치했다.

현대글로벌비스와 SSG닷컴은 앞으로 3개월간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친환경 전기배송차로 시범운행을 실시한 후 점진적 및 보완, 내년부터 차량 투입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양사는 지난해 10월 친환경 배송 패러다임 전환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전기차 배송서비스를 구축하기로 MOU를 맺은 바 있다. 1년 만에 협업이 구체화되면서 친환경 물류 확대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현대글로벌비스는 친환경 전기차 도입



김진곤 현대글로벌비스 신성장물류사업부장(오른쪽)과 광정우 SSG닷컴 운영본부장(왼쪽)이 친환경 콜드체인 전기 배송차 옆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현대글로벌비스

으로 환경 저해물질을 효과적으로 적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1일 주행거리 50km 기준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연간 1.96톤, 0.93kg 감축하는 것뿐 아니라, 200만원 연료비 절감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아울러 친환경 경영을 수행하는 동시에 신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콜드체인 시장에 대비하며 사업적 성과도 얻을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 시장조사 전문업체인 리포트링크에 따르면 글로벌 콜드체인 시장 규모가 지난해 1527억달러(184조340억원)에서 2025년에는 3272억달러(394조3414억원)로 두 배 이상 성장할 전망이다. 콜드체인 물류가 복잡하고 까다로워 정교한 작업을 필요

로 하는 만큼 전문 업체 기술력이 필수적이다.

현대글로벌비스는 지난 5월 콜드체인 물류 시장에 진출해 노하우를 쌓아왔으며, 이를 SSG닷컴 배송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현대글로벌비스는 친환경 물류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환경 친화적인 물류 서비스를 화주사에 제공한 공로를 인정받아 3년 연속 그린경영대상을 수상했으며, 올해에는 그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도 받았다. 2020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 평가에서 아시아-팩시픽 지수와 코리아 지수에 6년 연속 등재되면서 환경경영 성과도 함께 인정받았다. /김재용 기자

## 현대로템, 국산열차 신호시스템 수주

일산선 시범사업 2공구, 96억 규모 무인열차 운행 위한 필수 시스템

현대로템이 철도 신호 시스템 국산화에 성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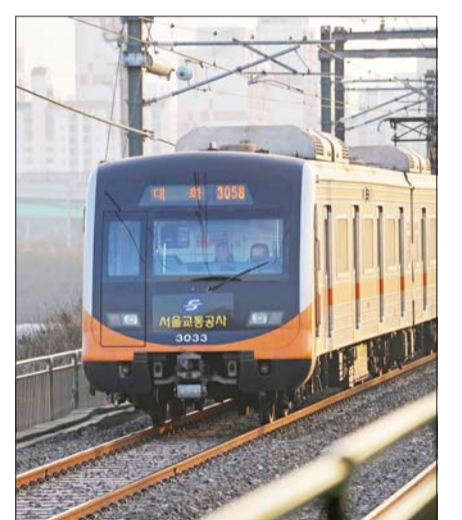
현대로템은 26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서 발주한 한국형 도시철도 신호 시스템(KTCS-M) 일산선 시범사업 2공구(대화역~정발산역)를 수주했다고 밝혔다. 사업규모는 약 96억원이다.

KTCS-M 기술은 국토교통부 주관 국가 R&D사업을 통해 지난 2015년 12월 한국철도표준규격으로 제정된 신호 시스템이다. 무인으로 열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설치해야한다. 현대로템은 2014년 KTCS-M 기술 개발에 성공해 2018년 수주한 동북선 열차에도 관련 기술을 적용할 예정이다.

그 동안 서울 1~9호선 및 일산선, 과천선, 신분당선, 인천 2호선 등 도시철도는 외산 신호시스템을 적용해왔다. 추후 현대로템이 개발한 KTCS-M 신호시스템을 도입하면 비용 절감뿐 아니라 유지 보수도 편리해질 전망이다.

이번 사업은 국가연구개발과제로 개발된 KTCS-M 기술의 안정성과 호환성을 검증하고 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해 진행된다. 현대로템 시스템은 2022년까지 건설하는 일산선 대화~백석 6.6km 구간에서 시범 적용하게 된다.

현대로템은 선로와 열차에 KTCS-



현대로템 KTCS-M 신호시스템 장치. /현대로템

M 신호장치를 설치하고 열차 출발부터 정차까지 모든 환경에서 무인으로 운행이 가능하도록 서울 3호선 1개 편성의 열차를 개조한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KTCS-M의 성능을 검증하고, 추후 일산선 전체 노선과 분당선, 과천선 등 기존 노선에 이 이를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부산 5호선 등 신규 노선에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KTCS-M 신호시스템 시장 규모는 2024년까지 약 5500억원으로 예상된다. 현대로템은 이번 일산선 시범 사업으로 상용화 실적을 보유하며 국산 신호시스템 보급에 적극 나선다는 전략이다. /김재용 기자



# 국민 안심 카드 DailyWith 데일리위드

**DailyWith 데일리위드** · 발급대상 : 개인(본인 및 가족)  
· 브랜드 및 연회비 : Mastercard / UnionPay 1만2천원, BC(국내전용) 1만원

**건강지킴이** · 항균성 99.9%, 각종 세균 및 바이러스 전파 방지

**생활도우미** · 1% 캐시백(6대 생활영역), 최다 사용 생활영역 1% 추가 캐시백  
6대 생활영역 : 음식점(커피), 온라인쇼핑, 마트(편의점), 대중교통(주유), 통신비, 병원비

▶연체이자율: 회원별, 이용상품별 약정금리+최대 3%(법정 최고금리 24% 이내) ※단, 연체 발생 시점에 약정금리가 없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적용합니다. · 일시불 거래 연체 시: 거래발생 시점의 최소기간(2개월) 유이자 할부금리 · 무이자 할부 거래 연체 시: 거래 발생 시점의 동일한 할부 계약기간의 유이자 할부금리 · 그 외의 경우: 약정금리는 상법상 상사법정이율과 상호 금융 가계자금대출금리\* 중 높은 금리적용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대출금리(신규대출 기준) ▶여신금융상품 이용 시 귀하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카드 신청 시, 혜택 제공조건 등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통해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신용카드 남용은 가계경제에 위협이 됩니다.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여신금융협회 심의필 제2020-C2b-07760호(2020.08.27)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0-3240호(2020.08.12) 게시기한 : 2023.08.11 · 개별 상품에 관한 자세한 문서는 거래영업점 또는 IBK고객센터(☎1566-2566)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카드 이용 시 제공되는 포인트 및 할인혜택 등의 부가서비스는 카드신규출시(2020.08.24)이후 3년 이상 축소되지 않아 유지됩니다. · 상기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카드사는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① 카드사 또는 부가서비스 관련 제휴업체의 휴업 · 도산 · 경영위기, 천재지변, 금융환경 급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의 발생 ② 카드사의 노력에도 제휴업체가 일방적으로 부가서비스 변경을 통보(단, 다른 제휴업체를 통해 동종의 유사한 부가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경우 제외) ③ 카드 신규출시 이후 3년 이상 경과했고 해당 카드의 수익성 유지가 어려운 경우 · 카드사가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부가서비스 변경 사유, 변경 내용 사유발생 즉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개별 고지해 드립니다. 특히 카드 신규출시 이후 3년 이상 경과했고, 해당 카드의 수익성 유지가 어려워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6개월 전부터 매월 개별 고지해 드립니다. 개별 고지 방법 : 카드대금청구서, 우편, 이메일, 휴대용 문자메시지 중 하나 · 필요이상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회원님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이용한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은행거래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IBK기업은행의 분쟁처리기구에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분쟁 조정위원회를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금융감독원 : 국번없이 ☎1332, IBK기업은행 : ☎080-800-0119) · IBK기업은행은 금융·항운을 받지 않습니다. 윤리경영 위반사실이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02-729-7490, e-mail : ibkethics@ibk.co.kr)





박정호 사장이 주주들에게 모바일 사업 추진 의미와 비전을 설명하고 있다. /SK텔레콤

## SKT, 脫 통신 행보 본격화

# 내달 '티맵모빌리티' 출범

모빌리티 사업부 분할계획서 승인  
우버테크놀로지 2대 주주 참여

SK텔레콤의 모빌리티 사업부문을 분사해 만드는 신설법인 '티맵모빌리티'가 내달 출범한다. 이를 통해 이동통신, 미디어, 보안, 커머스에 이어 모빌리티 분야에서도 SK텔레콤의 탈(脫)통신 행보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SK텔레콤은 26일 오전 10시 서울을 지로 본사 수펙스홀에서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모빌리티 사업부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은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81.64%가 투표에 참여했으며 참석 주식 총수 99.98%의 찬성으로 최종 통과됐다. 주총 승인으로 내달 29일 신설법인 '티맵모빌리티'가 출범하게 된다.

이날 박정호 SKT 사장과 이종호 티맵모빌리티단장은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모빌리티 사업 추진 의미와 비전을 주주들에게 소개했다.

박정호 사장은 "식사, 주거 외 가장 많은 비용이 드는 게 교통이며, 우리 일상에서 모바일 다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모빌리티"라며 "SKT의 ICT로 사람과 사물의 이동방식을 혁신하며 모빌리티 생태계에 새바람을 일으키기 위해 모빌리티 전문회사를 출

범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경기권을 30분 내로 연결하는 플라잉카를 비롯 대리운전, 주차, 대중교통을 아우르는 대한민국 대표 '모빌리티 라이프 플랫폼'을 제공할 것이다"며 "모빌리티사업이 SKT의 다섯 번째 핵심 사업부로서 새로운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티맵모빌리티는 서울 종로에 위치한 센트로폴리스에 자리한다.

지난달 SK텔레콤은 티맵모빌리티 채용 공고를 내고 인재 확보에 나서기도 했다. 우선 SK텔레콤 소속 모빌리티 사업부내 내부 직원을 이동한 후 공개 채용된 직원들이 합류할 예정이다. 사업단 규모는 약 250여명이다.

티맵모빌리티에는 세계 최대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 우버테크놀로지가 2대 주주로 참여한다. 아울러 양사가 공동 투자하는 조인트벤처(JV)도 내년에 설립할 예정이다. 우버는 여기에 1억달러 이상을 투자한다. 조인트벤처는 티맵모빌리티가 가진 T맵 택시 드라이버, 지도·차량 통행 분석 기술과 우버의 전 세계적인 운영 경험, 플랫폼 기술을 합쳐 혁신적인 택시 호출 사업을 전개할 것으로 기대된다.

회사 측은 티맵모빌리티의 시장 가치를 1조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향후에는 2025년 기업가치 4조5000억원 규모의 기업을 목표로 성장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

## 한진, 'Scale-Up 서비스' 출시

퀵배송 등 고객사 서비스 연결

한진은 '원클릭 택배서비스' 가입 고객사의 이커머스 사업 성장을 돕는 원클릭 'Scale-Up 서비스'를 새로 구축해 오는 12월 선보인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공유가치창출(CSV) 활동 일환으로 론칭한 원클릭 택배서비스는 전자상거래 시장의 핵심으로 떠오른 1인 창업자와 스타트업 등 소규모 발송 고객이 합리적인 가격과 간편한 기능으로 택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원클릭 택배서비스는 현재 SNS 홍보와 입소문으로 론칭 1년만에 가입사가 1만3000개를 돌파하며 고객수와 물량이 빠르게 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진은 원클릭 고객의 물동량 및 판매채널 증가 등 이커머스 사업확장을 지원하기 위해 고객 대상 간단한 설문과 이용 패턴 등을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한 뒤 전자상거래에 필

요한 서비스를 추천하고 연결해주는 원클릭 'Scale-Up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다. ▲퀵·당일배송 ▲풀필먼트 ▲해외 판매 지원 ▲소품물 고도화 ▲쇼핑몰 통합관리 ▲부자재 구매대행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이를 위해 한진은 지난 25일 서울 중구 한진빌딩에서 14개 제휴사와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진 노삼석 대표이사, 마케팅 총괄 조현민 전무와 제휴사 관계자가 참석했다.

한진은 또 원클릭 택배서비스 론칭 1주년을 기념해 이날부터 12월15일까지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원클릭 신규 서비스명을 맞추는 고객 감사 이벤트도 진행한다.

해당 이벤트는 추첨을 통해 각 1명씩 공기청정기, 커피머신, 무선 이어폰을, 100명에게 커피·디저트 세트 모바일 교환권을 각각 증정한다.

/김승호 기자 bada@

# 한국테크놀로지, 승계 갈등 증폭 조희경 “조현범 사장 너무 큰 욕심”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

조 이사장, 서면 인터뷰 진행  
“평소 건강한 아버지의 모습이나 가족에 비밀리 하고 주식 매매”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남매의 난'이 더욱 첨예해지는 모습이다.

26일 재계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조양래 회장 장녀인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은 25일 언론에 성명 자료를 배포하고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날 조양래 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심판 관련 가사조사를 받고 나서다.

조희경 이사장은 지난 7월 조양래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 23.59%를 차남인 조현범 사장에 매각한 직후, 조양래 회장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한 인물이다.

조 이사장은 서면 인터뷰에서 조양래 회장이 평소 건강한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라는 확신을 가졌다고 후견인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가업을 승계하는 중요한 문제를 가족에 비밀로 하고 갑자기 차남에 주식을 매매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을 보고 의문을 가졌다는 것이다.

조 이사장은 평소 조양래 회장이 누



조양래 한국테크놀로지그룹 회장

구보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분이라며, 가정에서는 가족의 화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장이고 회사에서는 준법과 정도경영을 강조하는 경영자라고 설명했다.

또 사람이 사는데 지나치게 많은 돈은 필요 없고, 너무 많은 부가 한 개인에 집중되면 오히려 불행의 씨앗이 될 수 있어 가난한 사람과 부를 나눌 때 모두가 윈윈이 될 수 있다고 믿었다고 회고했다. 돈을 낭비하지 말고 가치있게 쓰라는 말을 자주 했으며 본인도 검소하게 생활했다고 말했다.

공사 구분도 명확했다고 기억했다. 해외 출장에 부인을 동반하면 반드시 개인 카드로 비용을 지불하도록 지시

했으며, 개인적으로 해외 여행을 갔을 때 현지 지점에서 의전을 나오면 불호령을 내렸다고 성품을 떠올렸다.

특히 기업이 성장하려면 능력 있는 사람을 키우고 투자해야 한다고 했지만, 최근 들어 신사옥과 연구소 건물을 조현범 사장 치적처럼 자랑하는 것에서 주변 인물들이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의심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때문에 조양래 회장 건강 상태에 의심을 하게 됐고, 소유와 경영의 분리, 기업의 승계 과정이 투명하고 회사와 사회의 이익을 위해 이뤄져야 한다는 조양래 회장 신념을 지켜야겠다고 마음 먹었다는 주장이다.

조현범 사장에 대해서는 가족도 모르게 비밀작전하듯 갑작스럽게 주식을 매매하는 욕심까지 낼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다며, 조현범 사장이 너무 많은 욕심을 부리기 전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또 수평적인 의사소통을 중시하고 전문경영인을 발탁했던 조양래 회장과는 달리, 조현범 사장이 비리와 잘못된 경영 판단으로 금전적 손실과 한국타이어의 신뢰와 평판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게 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 KT, IPTV 최초 글로벌 진출 성공... 태국서 상용 출시

태국서 '3BB 기가TV' 상용화

KT가 인터넷TV(IPTV) 최초로 글로벌 진출에 성공했다.

KT는 태국 3BB TV에 KT 올레TV 플랫폼 기술을 제공해 개발한 '3BB 기가TV'가 상용 출시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태국 3BB TV의 IPTV 상용화는 KT가 IPTV와 OTT 솔루션, 콘텐츠 전송망 최적화 기술과 광고 및 추천 검색 서비스, 엔드-투-엔드 품질관리 등 IPTV 사업 전반에 관한 기술과 플랫폼을 제공한 결과다.

사업규모는 240억원이다. 15개월간 200여명의 인력이 투입됐으며, 방역을 이유로 현지 출입국이 제한된 상황에서 11개 파트너사와 화상회의, 원격제어 등의 기술로 시장 조사와 컨설팅, 플랫폼 개발과 시스템 테스트 등을 진행했다. 코로나19로 인해 기업들의 글로벌 수출이 무산되는 상황에서도 비대면 협업을 통해 한국 IPTV의 글로벌



KT 광화문빌딩에서 KT 임직원들이 태국 3BB사와 화상회의를 연결해 IPTV 런칭 순간을 함께 축하하고 있다. /KT

첫 진출 성공이라는 성과를 이뤄냈다는 평이다.

KT의 IPTV 기술과 플랫폼을 기반으로, 시장 조사를 통해 태국 현지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기능도 추가했다. 우선 가족 구성원이 4명 이상이 대부분인 태국 가정환경을 반영해 하나의 TV에서 개인화 ID를 6개까지 만들 수 있도록 했으며, 열대성 폭우가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태국 기후 특성상 네트워크 환경이 불안정할 때를 대비해 화질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도록 했다. 또 HBO 등 여러 개의 OTT를 함께 시청하는 현지 동향을 파악해 추가 로그인 없이 IPTV에서 OTT들에 접근할 수 있는 UI를 적용했다.

KT는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미디어 산업의 성장과 비대면 글로벌 협력 경험을 기회로 삼아 이번 태국 IPTV 상용화를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속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김나인 기자

## 삼성전자, 동절기 무상점검 서비스 실시

삼성전자서비스가 동절기 무상점검 서비스를 제공한다.

삼성전자서비스는 '동절기 플러스케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수리 엔지니어가 출장 점검 서비스를 신청한 고객에 방문했

을 때 점검 요청 제품이 아니라도 추가 무상 점검 및 제품 사용 요령을 알려주는 내용이다. 한번의 방문으로 여러 제품을 점검 받을 수 있어 경제적, 시간적 효과가 크다.

계절별로 맞춤형 사전점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겨울에는 김치냉장고

와 세탁기에 초점을 맞춰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세탁기 동과 예방을 위한 설치위치 확인, 급/배수 호스 연결 상태 점검 ▲김치냉장고 김치 보관 및 온도 설정방법 안내 ▲드럼세탁기 배수펌프 잔수 제거 방법 안내 ▲전자동 세탁기 배수호스 점검 등 세탁기 결빙 예방활동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김재용 기자 juk@



# 국내 첫 물류전문 리츠 상장 ‘시동’ “비대면시대 물류센터 수요 증가”

## IPO 간담회

이에스알켄달스퀘어리츠

수도권 물류 거점서 허브역할  
임차인 80% 이커머스 산업  
임대율 97.9% 포트폴리오 매력  
1.4조 대규모 자산 보유 예정

“물류센터 기반의 사업 확장으로 물류 시장의 선두주자로 도약하겠다.”

국내 최초 물류전문 리츠인 ‘이에스알켄달스퀘어리츠(ESR켄달스퀘어리츠)’가 26일 온라인 기업설명회를 통해 유가증권 상장에 따른 전략과 비전을 밝혔다.

이에스알켄달스퀘어리츠는 글로벌 물류기업 ESR의 계열사인 켄달스퀘어리츠운용이 관리하는 리츠다. 물류센터를 기초자산으로 하고 있으며, 앞으로 편입될 안정 물류센터까지 포함해 총 11개의 물류센터, 총 1조4000억원 수준의 대규모 자산을 보유할 예정이다.

자산의 분포와 구성을 보면 경기도 고양, 부천, 용인, 이천, 평택 등 수도권과 핵심 물류거점 지역에 위치해 물류 허브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에스알켄달스퀘어리츠는 모든 자산을 100% 소유하고 있으며, 평균 준공 연한이 3.1년 미만인 신축자산과 97.9%의 높은 임대율로 안정된 포트폴리오를 내세운다.

대형물류센터의 수요는 최근 이커머



26일 윤원섭 켄달스퀘어리츠운용 대표이사가 온라인 기업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IR GO

스, 즉 전자상거래 시장의 확대와 다양한 온라인 비즈니스의 등장으로 각광 받고 있다. 이에스알켄달스퀘어리츠의 80%가 넘는 임차인이 이커머스 산업군이다.

윤원섭 켄달스퀘어리츠운용 대표이사는 “국내 리테일 시장의 온라인 매출 비중은 28.4%로 미국(11.0%) 대비 훨씬 높은 반면, 1인당 물류시설 면적은 0.5㎡로 미국(3.8㎡)보다 매우 낮게 나타난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이커머스 시장 규모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물류센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싱가포르, 일본, 미국 리츠의 섹터별 주가 추이를 살펴보면 코로나 19 이후 모든 섹터가 동시에 하락했다가 반등하는 추이를 보인다”며 “특히 물류리츠는 오피스, 리테일 및 호텔 등 여전히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 타 섹터 리츠와 비교했을 때 이전 주가를 뛰어넘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국내리츠는 상장절차의 간소화, 공모 리츠 개인투자자에 대한 세제혜택, 퇴직연금의 투자 허용 등으로 리츠 활성화에 긍정적 분위기가 조성되는 추세다.

윤 대표이사는 “물류 시장의 선두주자로 앞으로도 물류센터 자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와 투자자들에게 안정적으로 지속가능한 수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에스알켄달스퀘어리츠의 상장주 관사는 한국투자증권,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 모간스탠리인터내셔널로 총 공모주식수는 7145만9000주다. 공모 희망가액은 5000원이며, 공모예정금액은 3573억원 규모다. 12월 2일까지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진행하고, 12월 4~8일 일반 청약 받는다. 코스피 상장은 12월 23일 예정이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 대림산업, 기업분할 청신호… ISS “찬성”

내달 임시총회서 안건 가결 가능성

대림산업 기업분할에 청신호가 켜졌다. 26일 대림산업에 따르면 세계 최대의결권 자문사인 ISS가 분할 안건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혔다. 대림은 다음달 4일 임시총회를 열고 기업분할 안건을 다룬다.

ISS는 대림산업 임시주총안건 보고서를 통해서 대림산업 분할계획을 포함한 사내외 이사선임 등 모든 안건에 대해서 찬성을 권고했다. ISS는 대림산업이 추진하는 분할의 전략적 명분이 합리적이라고 평가했다. 더불어 지주회사 전환을 통해서 복합기업 디스카운트로 저평가 돼 있는 회사의 가치를 재평가 받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번 권고안으로 대림산업 분할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외국인 투자자 상당수가 ISS의 권고안을 따를 것이라 관측이다. 외국인투자자의 경우 의결권 자문사의 권고를 준용해 의사를 결정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대림산업 지분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들의 비중은 36.5%에 달한다.

대림산업은 오는 2021년 1월 1일 지주회사 체제로 출범한다. 이를 위해서 현재 대림산업을 지주회사 ‘디엘(가칭)’과 ‘디엘이앤씨’, ‘디엘케미칼’로 분할할 계획이다. 대림산업을 디엘과 디엘이앤씨로 인적분할하고 디엘에서 디엘케미칼을 물적분할하게 된다. 디엘과 디엘이앤씨는 기존 회사 주주가 지분율에 따라 분할 신설회사의 주식을 나눠 갖는다. 분할비율은 디엘 44%, 디엘이앤씨 56%다. 디엘은 석유화학사업부를 물적분할해 디엘케미칼을 신설하게 된다. 디엘이 디엘케미칼 주식 100%를 보유하는 방식이다.

/정영우 기자 ywj964@



‘아크로 서울포레스트’ 야경 투시도.

/대림산업

# 대림, 디벨로퍼 사업 성공적 안착

‘아크로 서울포레스트’ 내년 입주

‘아크로 서울포레스트’가 내년 입주를 앞두고 있다. 대림산업이 디벨로퍼 사업으로 추진한 프로젝트다. 직접 사업 개발부터 시공, 운영까지 담당한다.

26일 대림산업에 따르면 지난 2005년 부지를 매입한 후 약 15년 만에 성공적으로 안착한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들어서는 아크로 서울포레스트는 49층 규모 주거시설 2개동과 33층 규모 업무시설, 문화시설, 판매시설 등으로 구성됐다. 주거동 입주는 내년 1월부터 진행된다. 업무, 문화, 판매시설도 내년 상반기 중 입주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대림은 해당 부지를 지난 2005년 3824억원에 낙찰받았다. 이후 2008년 최고급 주상복합단지를 계획해 분양을 실시했으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로 사업이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이후 대림은 고객 라이프스타일 분

석을 통한 다양한 평면 도입, 한강과 서울숲 조망을 극대화할 수 있는 특화 설계 등을 적용해 2017년 ‘아크로 서울포레스트’로 다시 분양사업을 재개했다. 모든 가구에서 서울숲 및 한강 조망이 가능하도록 층별 가구수를 3가구로 조합(9층 이하 4가구)하고 T자로 건물을 배치했다.

가구 내부에는 창문 중간 프레임이 없애 아트프레임과 와이드하게 펼쳐지는 270도 파노라마 뷰가 적용됐다. 천장 높이도 기존 아파트 층고(2.3m)보다 높은 2.9m에서 최고 3.3m 높이로 설계해 풍부한 개방감과 일조량을 제공한다. 저층부에는 오픈형 그린 발코니를 적용해 서울숲을 더욱 가까이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지난 2017년 당시 3.3㎡당 4750만원으로 서울 최고 분양가를 갈아치우며 분양을 실시했다. 대형 고급 주택임에도 청약 경쟁률 2.89대 1을 기록하며 빠른 시간에 대부분 계약을 마무리했다.

/정영우 기자

# 고밀도 회로기판 기술력… 매출 97% ‘해외’

## IPO 간담회

티엘비

2018년부터 영업이익률 업계 최고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기업과 거래

인쇄회로기판(PCB) 제조 전문기업 티엘비가 26일 기업공개(IPO) 기자간담회를 통해 코스닥 상장에 따른 사업계획과 비전을 발표했다.

지난 2011년 설립된 티엘비는 PCB 제조 전문기업으로 반도체, 고밀도 회로기판(HDI), 고다층(High-Multilayer) 등의 기술 융합을 통한 차별화된 기술력을 확보했다. PCB는 저항기·콘덴서·집적회로 등 전자부품을 인쇄 배선판의 표면에 고정하고, 부품 사이를 구리 배선으로 연결해 전자회로를 구성하는 기판이다.

티엘비는 메모리 모듈 PCB, SSD 모듈 PCB 제품군에서 ▲데스크톱 PC용 ▲소형 PCB 북·노트북용 ▲서버용 제품 등의 제품군을 각각 갖추고 있다. 메모리 모듈 PCB는 ‘DDR5’, SSD 모듈 PCB는 ‘엔터프라이즈용 PCB’를 차세대 신제품으로 개발했다.

또 ▲스마트 팩토리를 통한 혁신적인 생산시스템 구축 ▲인공지능(AI)



26일 백성현 티엘비 대표이사가 기업공개(IPO) 기자간담회를 통해 코스닥 상장 후 계획과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IR

기반의 PCB 제조 실증 데이터 수집 ▲공장 에너지 관리 시스템(FEMS)과 에너지 저장장치(ESS)를 통한 에너지 효율 극대화 등 생산 공정 혁신을 이뤄올해 상반기 기준 10%의 영업이익률을 포함해 2018년부터 업계 최고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한편, 국내외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업계 톱티어(Top-tier)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글로벌 사업도 계속 확장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회사의 전체 매출 중 해외 매출의 비중은 96.6%를 차지했다.

티엘비는 올해 3분기 연결기준 누적 매출액 1424억원, 영업이익 134억원, 당기순이익 109억원을 기록했다. 특

히,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개년 연결기준 매출액 16.1%, 영업이익 176.5%, 순이익 370.1%의 평균 성장률로 고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신제품인 DDR5용 PCB는 DDR5 시대로의 전환과 함께 고객사 신제품 개발의 60% 이상을 확보했다. 지난 2017년 인텔(Intel)이 발표한 신규 SSD 규격 ‘룰러(Ruler)’에 최적화된 엔터프라이즈(Enterprise)용 SSD PCB도 개발해 차세대 SSD 시장을 선점한 상태다. 이들 제품은 내년부터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간다.

백성현 티엘비 대표이사는 “티엘비는 설립 후 우수한 기술력과 혁신적인 생산 시스템을 기반으로 지속 성장해 국내 반도체용 PCB 시장 선두기업의 지위를 확보했다”며 “코스닥 상장 후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미래의 핵심 기업을 목표로 성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티엘비의 상장주관사는 DB금융투자다. 총 공모주식수는 100만주, 공모가 밴드는 3만3200원~3만8000원이다. 오는 30일~12월 1일 수요예측을 통해 공모가를 확정 후 12월 3일~4일 일반 청약을 받는다. 코스닥 상장은 12월 14일 예정이다.

/박미경 기자

# 투교협, ‘여의도투자이야기’ 시리즈 선배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가 금융투자업의 산실인 여의도에서 투자에 얽힌 재밌고, 숨겨진 이야기들을 찾는 ‘여의도 투자이야기, 여의주’ 시리즈를 제작해 26일부터 투교협 홈페이지, 유튜브, 네이버TV 등에 순차적으로 게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콘텐츠는 투자정보·전략, 시장

전망·분석 등과 같은 전문적인 내용보다는 금융소비자가 투자를 좀 더 친근하게 접할 수 있도록 마중물 같은 이야기로 구성돼 있다. 또 금융전문 유튜버를 꿈꾸는 아나운서들이 직접 기획에 참여해 금융전문가와 함께 인터뷰, 대담형식 등 다양한 콘셉트로 진행을 이끌어간다.

/박미경 기자

# LGU+, '부회장'직 버리고 '사장' 체제... 첫 내부출신 수장

## LG유플러스 2021년 임원인사

CEO에 황현식 컨슈머사업총괄 사장  
성공적인 모바일사업 이끈 성과  
영업노하우로 공격적 전략 예상



LG유플러스 황현식 사장 내정자. /LG유플러스

LG유플러스가 황현식 신임 최고경영자(CEO)를 선임하며 젊은 기업으로 탈바꿈하고, 체질개선에 나선다. LG유플러스는 10년 만에 '부회장'직을 버리고 '사장' 체제로 돌입한다.

26일 LG유플러스는 황현식 컨슈머사업총괄 사장을 새 CEO로 선임하고, 2021년 임원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로 LG유플러스는 첫 내부 출신 수장을 탄생시켰다. 황 사장은 내년 이사회 및 주주총회를 거쳐 대표이사로 정식 취임한다.

특히 1962년생인 황 사장은 LG유플

러스 내부에서 성장한 인물로는 첫 CEO 취임한 사례라는 점이 돋보인다. 그간 LG유플러스 수장은 LG그룹사 임원 등이 다수를 차지했다. 내부 인사를 통해 조직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가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아울러 황 사장은 용퇴하는 하현희 부회장과는 5살 차이로, LG유플러스는 50대의 젊은 수장을 맞이하게 된다.

이는 젊은 인사를 통해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서 5세대(5G) 이동통신 기반의 ICT 혁신이 중요한 만큼, 본업인 통신뿐 아니라 신사업에서도 기민하게 대응해 한단계 더 도약하려는 전략인 것으로 풀이된다.

황 사장은 1999년 LG텔레콤에 입사해 강남사업부장, 영업전략담당 등을 역임한 '영업통'이다. LG유플러스의 모바일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끈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해 LG그룹에서는 유일하게 사장으로 승진한 바 있다. 올해는 컨슈머사업총괄 사장을 맡아 유무선 사업을 전두지휘했다.

떠나는 하현희 부회장은 황현식 사장을 "탁월한 사업역량과 열정을 가진 사업가일 뿐만 아니라 신뢰와 존경을

받는 출중한 리더이자 오랜 기간 LG그룹 사업현장에서 같이 일해온 동지"라고 평했다.

아울러 10년 만에 '사장' 체제로 바뀐 점도 눈길을 끈다. LG유플러스는 사장 직급이었지만, 이상철 부회장이 CEO로 부임하고 LTE로 성과를 낸 이후 '부회장'으로 직급을 상향했다. 하지만 황 사장이 선임되면서 직급이 다시 '사장' 체제로 돌아갔다.

황현식 사장은 '영업통'인 만큼 경쟁사들과 비교해 공격적인 영업전략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20여년간 쌓아온 통신 사업 경험 노하우로 미래 성장 동력을 이끌 새 성장 기회 발굴에도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LG유플러스는 부사장 2명, 전무 4명, 상무 9명에 대한 임원 승진 인사도 함께 실시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LG유플러스에서 첫 여성 전무 2

명이 탄생해 눈길을 끌었다. 회사는 이번 인사에서 여명희 경영기획담당과 김새라 마케팅 그룹장을 LG유플러스 최초의 여성 전무로 발탁했다. 그중 여명희 담당은 LG그룹 내에서도 재무과 인으로는 첫 여성 전무다.

아울러 대외정책전문가인 CRO 박형일 전무와 신사업을 담당하는 현준용 전무를 부사장으로 선임하고, 복합문화공간 '일상비일상의틈'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김새라 마케팅 그룹장과 양효석 CHO, 이상엽 기술개발그룹장을 전무로 올렸다.

아울러 이번 임원인사 중 고은정 신임상무는 고객센터 상담사 출신으로 파격적인 인사라는 평이 나온다. LG유플러스는 "고 상무가 풍부한 현장 경험과 노하우로 고객센터의 역량을 끌어올린 점을 인정받아 상무로 선임됐다"고 설명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 지하철 없는 신도시?... 9호선 인천 직결 난항

## 국토부-지자체간 비용분담 문제 하남·남양주 9호선 연장 검토중



인천 계양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가 지하철 없는 신도시가 될 위기에 처했다. 수확이 끝난 농지가 펼쳐져 있는 계양테크노밸리 전경. /정연우 기자

서울 지하철 9호선의 인천 직결사업이 국토교통부와 지자체 간 비용 분담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 이와 더불어 3기 신도시 선정지역 중 하나인 인천 계양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이하 계양테크노밸리)는 현재 철도 노선 신설 계획이 전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하철 없는 신도시가 될 위기에 직면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9호선 공항철도 직결사업은 김포공항역에서 환승 없이 계양과 청라를 지나 인천국제공항역까지 갈 수 있게 하는 서울시 도시철도사업이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서울시, 인천시 간 사업비 분담을 놓고 갈등 양상이 이어지면서 좌초될 가능성이 불거지고 있다.

서울 지하철 2·9호선의 인천 직결은 박남춘 인천시장의 공약이었다. 박 시장은 지난해 초 서울 지하철 2호선 청라연장을 계양테크노밸리와 연계해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요청했지만 무산된 바 있다. 사업에 진전이 없자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23일 '공항철도·서울지하철 9호선 직결 결의

안'을 원안 가결했다. 3기 신도시인 계양테크노밸리는 지하철 없는 도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및 인천시청 관계자에 따르면 계양테크노밸리는 철도 노선 신설 계획이 없다. 현재 S-BRT(슈퍼-간선급행버스) 노선만이 계획됐을 뿐이다.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계양테크노밸리는 총 1만70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되며 첨단 산업단지가 구축된다. 기업 입주까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철도 노선의 부재는 주민 입장에서 커다란 불편 사항이 될 가능성이 크다.

계양테크노밸리와 가까운 역으로 인천지하철 1호선 임학역, 박촌역, 계양역 등이 있다. 서울로 이동하기 위해서

는 계양역에서 공항철도로 환승해야 한다. 그러나 계양역까지는 차를 타고 10분 가까이 이동해야 할 정도로 거리가 멀다. 출·퇴근 시간이 되면 그 이상 시간이 걸린다.

국토부 관계자는 "3기 신도시로 예정된 하남과 남양주의 9호선 연장 계획은 현재 검토 중으로 다음 달 확정 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D노선 신설 계획은 현재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GTX-D 노선이 개통하면 인천공항에서 삼성역까지 이동 시간이 120분에서 45분으로, 검단에서 하남까지는 165분에서 39분으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 /정연우 기자 yw1964@

# LH, 코트라·산단공과 유턴기업 지원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서울 서초구 KOTRA(코트라) 본사에서 코트라,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전세계적으로 해외 진출 기업이 자국으로 돌아오

는 유턴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정부 또한 최근 관련 법령을 개정해 유턴기업 보조금 한도를 기존 기업별 100억원에서 최대 600억원(사업장별 300억원)으로 대폭 늘리고, '20인 이상 상시 고용' 요건을 폐지하는 등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번 협약은 산업단지 입주지원 등 다양한 입지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LH와 유턴기업 지원을 전담하는 코트라, 유턴보조금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한국

산업단지공단이 함께 유턴기업의 사업장 입지 물색을 도와 성공적인 국내 정착을 돕고, 유턴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세 개 기관은 협의체를 구성해 국내 사업장 입지선정에 어려움을 겪는 유턴기업에 지역·규모·용도·업종을 고려한 맞춤형 입지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산업단지에 입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애로사항을 파악해 정부 제도개선에 활용하고, 정보교류를 통한 유턴 후보기업 공동 발굴 등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정연우 기자

## 네이버, 건강한 댓글문화 만드는 'AI 클린봇'

작성댓글 탐지, 자동으로 블라인드 API, 조만간 오픈 API로 공개

네이버가 악성 댓글을 걸러내는 '클린봇' 기술을 다른 사이트나 앱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며 건강한 댓글 문화 조성에 나선다. 26일 IT 업계에 따르면 최경호 네이버 미디어인텔리전스 소속 개발자는 전날 열린 네이버 개발자 콘퍼런스 '데뷰 2020'의 '조금 더 아름다운 댓글 경험을 위해서' 세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소개했다.

그는 네이버가 클린봇의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를 조만간 오픈 API로 공개한다고 발표했다. 오픈 API란 인터넷 이용자 혹은 애플리케이션 개발자가 직접 응용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한 기술의 프로그래밍 규격이다. 쇼핑몰 앱에서 네이버로 가입·로그인하거나, 기업이 회사 위치를 구글 맵으로 알리는 것 등이 대표적인 오픈 API 사례다. 네이버는 현재 '네이버 개발자 센터'를 통해 일부 네이버 기술의 오픈 API를 제공하고 있다.

네이버에서 악성 댓글을 줄이기 위해 자체 개발한 클린봇은 AI 기술을 기반으로 악성 댓글을 잡아내는 역할을 한다. 지난해 4월 첫 선보인 이후 현재 스포츠, 주니어, 연예, 뉴스 등에 적용되어 있으며, 욕설과 비속어가 들어간 댓글을 탐지해 자동으로 블라인드 처리하고 있다.

이후 네이버는 지난 6월 클린봇을 업그레이드 하며 악성 댓글의 탐지 범위를 넓혔다. 클린봇의 악성 댓글 판단 기준이 '욕설 단어'에서 '문장 맥락'을 고려하는 것으로 확대되어, 비속어를 포함하지 않았더라도 모욕적인 표현이나 무례한 댓글을 탐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욕설 사이에 이모티콘이나 오타를 넣은 사례까지 모두 거르는 클린봇 2.0의 정확도는 95%에 달했다. 클린봇 도입 이전 대비 악플



클린봇이 악성댓글을 처리하는 모습. /네이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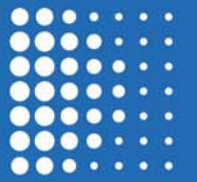
클린봇이 악성댓글을 처리하는 모습.

탐지 건수는 2배가량 늘었고, 악성 댓글 신고 건수는 19% 줄었다.

네이버는 성희롱이나 언어 성폭력을 막기 위한 '클린봇 레드'와 '클린봇 오렌지' 버전도 개발하고 있다. 성희롱 댓글의 경우 일반적인 악성 댓글보다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다.

레드 모델은 텍스트만으로 명백한 성희롱이거나 음란성 의도가 보이는 댓글을 걸러내고, 오렌지 모델은 댓글 텍스트 자체에는 성적인 표현이 없지만 기사나 게시글 본문과 이어지는 맥락이 있거나 성 인지 감수성 관점에서 봤을 때 부적절한 댓글을 걸러낸다. 예컨대 오렌지 모델은 '세계에서 가장 섹시한 골퍼', '오늘은 이거다' 같은 댓글도 성희롱으로 인지해 차단한다.

최경호 개발자는 "혐오·비하 표현이나 공격성을 띠는 댓글을 잡아내는 모델도 개발하고 있다"며 "스포츠 커뮤니티에서는 적절한 싸움을 허용하는 식으로, 각자 서비스에 맞게 악플 기준을 달리하는 모델도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Digital  
Transformation  
Partner

# kt Enterprise

## 대한민국 기업을 위한 디지털 혁신의 시작

언택트, 디지털 뉴딜

디지털로 빠른 변화와 혁신이 요구되는 지금  
당신의 기업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KT Enterprise가

AI, Big data, Cloud의 앞선 기술과

기업 유무선 통신의 전문성으로

대한민국 기업의 디지털 혁신을 이끌어 갑니다

Digital Transformation Partner

**kt** Enterprise

# ‘너무 나간’ 과로사대책위... CJ대한통운 “근거없이 왜곡”

## 허위주장에 진실게임 양상

과로사대책위, 물류센터 무단 진입 분류인원 투입 불이행 등 의혹 제기 CJ대한통운, 입장문서 정면 반박

국내 택배업계 1위인 CJ대한통운과 60여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과로사대책위)가 진실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 하고 있다.

과로사대책위가 CJ대한통운 물류센터를 무단으로 진입하고, 지난 25일엔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각종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회사가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서면서다.

코로나19 확산과 그에 따른 택배 물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택배 노동자 사망 등 불미스러운 일까지 발생하면서 업계내에서 택배 이해당사자간 대립이 첨예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CJ대한통운



지난 25일 오전 서울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과로사 대책 이행 점검 등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과로사대책위가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내용에 대해 “일방의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왜곡했거나 허위의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앞서 회사가 밝힌 ‘택배기사 및 종사자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성실하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로사대책위)이 같은 노력을 근거없이 편향하고 왜곡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전날 과로사대책위는 CJ대한통운 본

사 앞에서 집회를 갖고 “과로사 대책이 현실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악용되고 있다”면서 “CJ대한통운이 대리점에 대해 더욱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하고 책임있는 사과와 함께 처벌도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CJ대한통운이 지난 10월 기자회견을 통해 대표이사가 사과하고, ‘초과물량 공유제’ 도입을 밝히는 등 대책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선 대리점들의

‘갑질’로 택배 노동자들이 해고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이면서다.

그러면서 과로사대책위는 ▲CJ대한통운의 분류작업 인력 이달 투입 불이행 ▲산재보험 가입을 이유로 수수료 삭감 ▲동료에게 물량을 부당한 택배기사에 계약 해지 통보 등 현장에서 나타난 사례들을 증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CJ대한통운은 과로사대책위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며 즉각 대응에 나섰다.

회사측은 “25일 현재 분류지원 인력 1165명을 투입 완료했으며, 12월말까지 2000명 추가 투입을 목표로 전국 2000여 개 집배점과 협의 및 인력 구인을 진행하고 있다”며 “당초 약속대로 내년 3월까지 분류지원 인력 투입을 끝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택배기사가 동료에게 배송을 넘겼다는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해당 택배기사는 지난 9월 집배점장의 승인없이 타 집배점 택배기사에게 배송물량 372건을 임의로 양도해 계약상 ‘양도 및 담보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면서 “이후 해당 기사는 또다시

집배점장에게 통보없이 물량을 임의로 양도했고, 재발방지 약속서 작성도 두 차례나 거부해 11월18일 ‘계약 해지’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본사는 사실 관계 조사 후 계약 위반이 확인될 경우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CJ대한통운은 한 대리점이 산재보험 가입 명목으로 택배기사 수수료를 삭감한 것에 대해선 일부 내용이 사실로 확인돼 해당 집배점장에게 환급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고, 추가 조사 후 원칙에 따라 조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과로사대책위는 지난 20일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에 위치한 CJ대한통운 강북서브터미널에 현장점검을 이유로 무단진입한 뒤 회사관계자들의 퇴거 요구에도 불응하고 1시간 넘게 노조 가입을 유도하는 유인물을 뿌린 바 있다.

이에 대해서도 CJ대한통운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고 코로나19 방역체계를 무력화시킨 무단침입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캠핑족 등에 업고 몸집 불리는 ‘파세코’

올해 3분기 누적매출액 1557억 영업익 전년 76억 보다 86% 증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캠핑족이 늘며 캠핑난로 수요가 증가하자 파세코가 뜻밖의 수혜를 입고 있다. 이에 파세코 관계자는 올해 매출액이 2000억원을 무난히 넘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파세코의 올 3분기 누적 매출액은 1557억원으로 전년 동기 1362억원 보다 14% 늘어났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42억원으로 전년 동기 76억원보다 86% 대폭 늘며 눈길을 끈다.

파세코 관계자는 “올해 총 매출 예상액은 2000억원을 무난히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를 기반으로 내년을 더



파세코가 최근 출시한 캠핑난로 ‘캠프-10 섀트’ 제품 이미지. /파세코

기대해봐도 좋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파세코의 매출과 영업이익 상승에는 ‘캠핑난로’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파세코는 캠핑난로를 비롯해 심지난

로, 석유난로, 전기난로와 산업용 난로 등을 선보이며 세계 난로 시장 점유율 약 50%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다. 지난 2018년 9월에는 난로 단일 품목으로 만 해외수출 1조원을 돌파했다.

해외로만 수출되던 파세코의 캠핑난로는 2000년대 후반 국내 캠핑족들이 해외에서 요구해 하는 사례가 늘며 화제를 모았다. 이에 파세코는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국내판매를 시작해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실제 이날 기준 파세코 공식 홈페이지에서 판매 중인 난로 제품은 모두 매진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앞서 파세코는 지난 8월 자사 온라인몰에서 캠핑난로 2종 200대 예약판매를 진행했지만, 판매 시작 5분 만에 매진되기도 했다.

/백지연 기자 wldus0248@

##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관리’ 체계 강화

중기부, 부정행위 등 방지 대책

중소벤처기업부의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가 인기를 얻고 있는 가운데, 중기부가 부정행위와 부적정 서비스방지를 위한 발판을 마련한다.

중기부는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추진 현황과 부정행위 및 부적정 서비스에 대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고 26일 밝혔다.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화상회의, 재택근무 등의 비대면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업당 최대 400만원까지 바우처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기부는 올해 지원 가능한 업체 수가 8만개임을 고려해 지난 23일까지 신

청·접수를 조기 마감한 결과, 최종적으로 10만1146개의 업체가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수요기업 중 바우처를 통해 사용 중인 서비스 상품에 만족하고 있는 사례도 확인할 수 있다.

컨설팅 및 행사기획 업체인 스타리치 에이지알 임희도 대표는 “사용료의 90%를 지원해주고 사용자는 10%만 부담하고 있어 큰 부담 없이 서비스를 사용 중이다”며 “컨설팅 업무와 교육도 화상 서비스 기능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등 코로나 이후 불편했던 부분들이 많이 해소되고 있다”고 말했다.

플랫폼 내 부정행위 신고센터, 이메일·유선전화,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23일 기준 총 48건의 부정행위 의심 사례가 신고·접수됐다.

/백지연 기자

## 쌍쌍, 전동킥보드 가이드라인 공동개발

공유 킥보드 업체 쌍쌍이 도로교통공단과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안전 가이드라인 공동 개발에 나선다.

쌍쌍의 운영사 피유엠피는 최근 도로교통공단과 데이터에 기반한 교통안전 가이드라인과 안전하고 편리한 친환경 모빌리티 도로안전환경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쌍쌍은 도로교통공단에 지역별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자 사용 행태 및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등 통계 자료를 제공한다. 도로교통공단은 이를 활용해 안전사고 위험 요인을 분석, 안전 대책과 가이드라인을 연구한다. 이밖에 쌍쌍은 도로교통공단과 합



쌍쌍의 운영사 피유엠피는 최근 도로교통공단과 데이터에 기반한 교통안전 가이드라인과 안전하고 편리한 친환경 모빌리티 도로안전환경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피유엠피

계 관련 활동에 수반되는 안전장비를 지원하는 등 사용자 안전 캠페인 활동을 펼친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 중소상공인희망재단

### 5대 이사장에 민흥기 변호사

중소상공인희망재단(희망재단) 제5대 이사장에 민흥기 현 법무법인 에이펙스 대표변호사(사진)가 선임됐다.

희망재단은 정기이사회에서 민흥기 이사장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고 26일 밝혔다. 임기는 3년이다. 민 이사장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운영위원 및 서울중앙지법 조정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 코웨이 환경기술연구소 국제숙련도 13년 연속 ‘적합’

먹는 물 검사기관 인정

코웨이의 환경기술연구소가 국제적인 수준의 수질분석 능력을 인정받았다.

코웨이는 먹는 물 검사기관 인정을 위한 국제숙련도 평가에서 13년 연속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국제숙련도 평가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인증을 받은 국제숙련도시험기관을 통해 시험분석 능력을 검증받는 국제 공인 평가 프로그램이다. 평가 방법은 일정 농도의 물질이 함유된 미지의 시료를 받아 이를 분석한 후 검증기관에 제출해 항목별 분석 결과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코웨이 환경기술연구소는 글로벌 제



코웨이 환경기술연구소에서 연구원들이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코웨이

약기업 ‘머크’(Merck)사가 주관하는 먹는 물 국제숙련도 평가에서 중금속, 유기물, 이온물질 등 먹는 물 분야의 17개 항목에 대해 모두 적합 판정을 받으며 먹는 물 수질검사에 대한 뛰어난 측정 및 분석 능력을 입증했다.

/김승호 기자

## LG생활건강 부사장에 이형석 전무 승진

### 2021년도 정기 임원인사 발표

LG생활건강이 26일 이사회를 열고, 부사장 승진 1명, 전무 승진 1명, 신규임원 선임 5명 등을 포함한 2021년도 정기 임원인사를 발표했다.

급변 인사는 성과주의와 조직 내 성장기회를 감안한 승진인사를 실시했으며, 젊은 사업가 및 전문성과 실행력을 갖춘 인재를 신규임원으로 선임했다.

이에 따라 럭셔리뷰티사업부장으로 '후'의 글로벌 명품 브랜드화 및 차세대 럭셔리 브랜드의 육성을 통해 사업을 성장시키고 있는 이형석(사진) 전무가 부사장으로 승진하고, 국내외사업의 성장 가속화 지원 및 글로벌 인적자원 관리와 인재개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장기용 상무를 전무로 승진시켰다.

또한 해외까지 포함한 생활건강 전체 물류 시스템의 선진화와 혁신을 주도적으로 이끈 물류 전문가인 공병달 상무와 디테일과 크리에이티브를 겸비



했으며 디자인의 차별화를 통해 '후', '오후' 등 럭셔리 브랜드 성장에 기여한 유영복 상무, 김인철 상무를 첨단 설비를 갖춘 신설된 테크노폴리스 공장 및 기존 청주공장 등 화장품 생산 전체를 맡기기 위해 신규임원으로 선임했다.

한편, 신규임원 선임 5명 중에는 글로벌 감각과 전문성을 갖춘 여성 인재가 2명이 포함됐는데, 한국은 물론 미국에서 색조화장품 경쟁력 향상을 위해 색조 R&D를 총괄하고 있는 색조화장품 연구소장 강연희 상무를 임원으로 선임했다. 또 젊고 역량이 뛰어나며 급격히 진화하는 디지털 사업에 젊은 감성으로 발빠르게 대응해 온 해외 현지 여성 인재 30대의 지혜경 상무를 전격 발탁했다. /원은미 기자

## 사조대림 '고급맛살' 中 대륙서 통했다

### 10월 누적 매출 100억 달성

사조대림 고급맛살이 중국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으며, 중국시장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다.

종합식품기업 사조대림은 '대림선 고급맛살'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 동안 중국시장에서 100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고 26일 전했다.

사조대림은 2017년, 중국에서 한국의 계맛살을 프리미엄 간식으로 즐겨 먹는다는 트렌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국시장에 고급맛살을 선보이게 됐다. 2018년까지 시장과 맞물린 유통망 확충 등에 주력했으며, 이후 국내 고급맛살 1위 제품 '대림선 랍스터킹'을 앞세워 2019년부터 공격적인 영업·마케팅 활동을 전개했다.



사조대림의 대림선 고급맛살이 올해 10개월 동안 중국서 100억원 매출을 올렸다. /사조대림

최상급 알래스카 명태 연육과 랍스터의 집게발이 그대로 담긴 듯한 모양을 형상화해 눈길을 사로잡는 '대림선 랍스터 킹'은 2019년 11월 편의점(로손) 입점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입점을 확대하고 있으며 올레, 허마세셴 등 중국의 대표적인 대형마트 약 500여 개 점포에도 판매 중이다. /원은미 기자



서울신라호텔이 겨울방학을 맞아 북콘서트가 포함된 '메리 윈터' 패키지를 준비했다. /신라호텔

## "즐거움·유익함 동시만족 키캉스 떠나요"

### 서울신라호텔 '메리윈터' 패키지

서울신라호텔이 '키캉스' 아이템을 객실 안으로 들여와 즐거움과 유익함, 안전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신라호텔이 겨울방학시즌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메리 윈터' 상품을 선보인다. 공용 공간인 키즈 라운지 대신 객실에서 이용 가능한 프로그램들로 가족 고객들에게 만족감을 선사하는 패키지다.

'메리 윈터' 패키지를 이용하는 가족

들은 아늑한 객실에서 '마들린느의 크리스마스' 북 콘서트를 관람할 수 있다. 음악과 그림책을 활용해 북클럽 수업, 북 콘서트 등을 선보이고 있는 어린이 융합 예술 스튜디오 '클랩(CLAP)'이 신라호텔을 위해 준비한 이 영상은 서울신라호텔의 스위트 객실에서 촬영돼 마치 같은 공간에서 이야기를 듣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

몸집은 작지만 당찬 소녀 '마들린느'의 특별한 크리스마스 이야기가 북 큐레이터의 입을 통해 생동감 있게 전달되며, 흥겨운 피아노 선율을 따라 진행돼 몰입도를 높인다. /원은미 기자

# 대웅제약-시선바이오, 판매 계약 코로나19 진단키트 6종 해외공급

## 코로나19 감염여부 30분만에 확인 '신속성 특징' 응급·공항 등서 유용 국제 허가신청·수출 적극 추진키로

대웅제약은 시선바이오머티리얼스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전자증폭진단(PCR) 진단키트 제품 6종에 대한 글로벌 판매 계약을 맺었다고 26일 밝혔다.

대웅제약이 판매하게 되는 제품들은 신속진단을 위한 '에이큐탐시리즈' 2종과 정밀진단을 위한 3종의 '유탐시리즈', 검체채취 도구인 '탐바이러스컬렉션키트'로 코로나19 진단의 전 과정을 아우르는 '윈스톱 진단 플랫폼'이다.

에이큐탐 시리즈(에이큐탐, 에이큐탐플러스)는 루프매개 증폭방식의 PCR진단기술로 30분 만에 코로나19 감염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속성이 특징으로, 응급 선별검사나 공항·항만



에서의 출입국자 검사 등에 유용하다. 유탐시리즈 중 '유탐'은 미국 식품의약품(FDA)에서 진행한 긴급사용승인제품에 대한 성능테스트에서 160여개 제품 중 민감도 3위를 차지했으며 '유탐플러스'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와 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한 유전자 4종 모두를 검출할 수 있다. '유탐사스플루'는 코로나19뿐 아니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또한 검출이 가능하다.

특히 이번 계약으로 판매하는 시선바이오의 6개 제품 전체가 유럽 제외된 단용의료기기 인증(CE-IVD)을 받았

으며 3개(에이큐탐시리즈, 유탐)가 미국 FDA에서 긴급사용승인 허가를 받아 미국·유럽에서 즉시 판매 가능하다. 대웅제약은 양대 시장을 거점으로 해외지사·법인과 폭넓은 글로벌 파트너 네트워크를 활용해 제품들의 국제허가 신청 및 수출을 적극 추진해간다는 계획이다. 대웅제약은 우선 6개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한편, 추후 시선바이오의 다른 제품들도 계약 범위를 넓혀갈 예정이다.

전승호 대웅제약 대표는 "시선바이오의 우수한 진단키트를 세계에 공급하는 한편 DWRX2003(성분명 니클로사마이드), 호이스타정(성분명 카모스타트) 등 당사의 코로나19 치료제 후보들을 성공적으로 개발하겠다"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토달솔루션을 대웅제약이 세계에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 빙그레 tft, 남성위한 건강브랜드 '마노플랜'

## 여성 브랜드 '비바시티' 이어 론칭 밀크씨슬캡슐+비타민 드링크 구조

빙그레 건강 브랜드 '빙그레 건강 브랜드 tft'가 건강기능식품 사업을 확장한다.'가 건강기능식품 사업을 확장한다.

tft는 지난해 여성 건강 브랜드 '비바시티'에 이어 최근 남성 건강 브랜드 '마노플랜'을 론칭했다고 26일 밝혔다.

빙그레의 건강통합브랜드 tft는 맛(taste), 기능(function), 신뢰(trust)의 영문 머리글자를 따서 만든 브랜드다. tft 마노플랜은 '남성을 위한 건강 플랜'이라는 뜻으로 남성 건강 고민의 마침표라는 컨셉을 내세운 남성 건강 브랜드다. 원료의 함량부터 부원료의 선정까지 남성을 고려해 설계한 마노



TFT의 남성 건강 브랜드 마노플랜에서 나온 '마노플랜 간건강&활력'. /빙그레

플랜은 직관적이고 간편한 취식 방식이 특징이다.

마노플랜 브랜드의 첫번째 제품 '마노플랜 간건강&활력' 제품은 업무, 음주, 스트레스로 건강을 챙기기 힘든 남성들을 위한 제품으로 상단부에는 밀크씨슬캡슐, 하단부 활력 비타민 드링크

구구조로 하루 한 병으로 언제 어디서든 섭취가 가능하다. 특히 하단부의 드링크에는 비타민 B군을 기본으로 홍삼농축액, L-아르지닌을 포함한 8종의 부원료에 정상적인 면역기능을 위한 아연의 1일 영양성분기준치인 8.5mg도 함께 함유돼 있다.

인체에서 간은 해독 작용, 혈액량 조절, 항체 생산 등 다양한 기능을 통해 면역력을 증진하는 매우 중요한 장기다. 하지만 간 내부에는 신경세포가 없기 때문에 70~80%가 손상이 되더라도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흔히 '침묵의 장기'라고 불린다. 따라서 간 건강을 위해 지속적인 검진과 관리가 필요한데 이는 다양한 간 건강을 위한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이 판매되고 있는 중요한 이유다.

/원은미 기자 silverbeauty@

## 전자랜드, 홈카페 가전 판매 23% ↑

### 커피메이커 13% 믹서기 12% 등

올해 '홈카페족'이 늘어나면서 관련 가전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

26일 전자랜드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11월 22일까지 관련 가전 판매량을 분석한 결과 전년동기대비 커피메이커는 13%, 믹서기는 12%, 토스터기는 17%, 정수기는 8%, 에어프라이어는 27%, 전자레인지 6% 판매 성장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전기오븐은 1% 판매 성장에 그쳤으나, 지난 9월부터 판매량이 증가하며 3개월간(9월 1일부터 11월 22일까지) 판매량이 전년동기대비 23% 성장했다.

전자랜드는 온라인 강의와 재택 근무 등 비대면 활동이 증가하고, 카페 대

신 집에 머무르며 음료와 디저트를 즐기는 소비자들이 많아진 것이 관련 가전 판매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실내에서 할 수 있는 '홈이킹'을 취미로 삼는 고객들이 많아지며 에어프라이어, 토스터기, 전자레인지, 전기오븐 등의 가전이 호조를 보였다.

대부분의 홈카페 관련 가전은 9월까지 판매 증가세를 기록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10월 초부터는 판매량이 주춤했다. 하지만 전자랜드는 코로나의 재확산으로 많은 소비자들이 카페 이용을 자제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홈카페 관련 가전 판매량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고있다.

/신원선 기자

### 에이블씨엔씨 '미샤'

## 비폴렌리뉴 앰플러 판매 200만개 돌파

에이블씨엔씨는 자사화장품 브랜드 미샤의 '비폴렌리뉴 앰플러(사진)'가 200만개 판매를 돌파했다고



26일 밝혔다. '비폴렌리뉴 앰플러'는 슈퍼푸드인 알라틴 '벌 꽃가루(비폴렌)' 추출물을 42% 이상 함유한 제품이다. 뛰어난 보습력이 장점으로 2018년 4월 출시 직후부터 뷰티 크리에이터들 사이에서 '공명템(제품의 바다이 드러날 때까지 사용했다는 의미)'으로 화제를 모았다. 꾸준한 인기로 지난해 10월에는 100ml 대용량 제품도 출시됐다. /원은미 기자



**정몽구재단, 전국 독거노인에 온드림 희망나눔 키트 전달**  
 정몽구재단은 '온드림 희망나눔 키트' 사업으로 전국 독거노인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온드림 희망나눔 키트는 정몽구 재단에서 방역용품과 생활용품 키트 구성품을 기획하고 재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마스크와 소독제 등 방역용품과 밥과 반찬 등 식품으로 구성했다. 현대차정몽구재단 관계자들이 '온드림 희망나눔 키트'를 전달하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현대차정몽구재단



**포스코인터, 프로보노 봉사단 성과공유회**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약 6개월 간 실시했던 프로보노 봉사단의 사업성과 및 활동 사례를 공유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26일 인천 송도에서 재능기부 컨설팅 프로그램인 프로보노 봉사단의 활동 사례를 발표하고, 공생가치 창출을 통한 '기업시민' 이념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포스코인터내셔널주식회 대표이사 사장(앞쪽 오른쪽 여섯 번째)과 임직원 프로보노 봉사단, 사회적기업 대표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



**한국지엠, 지역 이웃들에 김장김치 나눔 행사**  
 지열한마음재단코리아는 26일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함께 한국지엠 부평 본사에서 '따뜻한 겨울나기 김치 나눔' 행사를 통해 마련한 총 10t(톤)의 김치를 인천 지역 사회복지 기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열한마음재단코리아 카허 카셀 이사장(오른쪽), 문승 한국지엠 협신회 회장(가운데), 허우영 한국지엠 협신회 부회장(왼쪽)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한국지엠



**KT&G복지재단, 저소득 가정에 6.8억 규모 난방비 지원**  
 KT&G복지재단이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저소득 가정 3400여 세대에 총 6억8000만원 상당의 난방비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KT&G복지재단은 겨울철 경제적 어려움으로 난방이 어려운 저소득 가정에 등유, 연탄 등의 난방 연료와 도시가스비를 지난 2005년부터 매년 지급해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누적 지원 금액은 약 100억원에 달한다. KT&G복지재단이 저소득 가정에 난방용 연탄을 지원하고 있다. /KT&G

## 아산의료원장에 박성욱 교수 선임

아산사회복지재단은 26일 박성욱 아산의료원장(사진)과, 박승일 서울아산병원장, 남기호 흥천아산병원장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박신임 아산의료원장은 서울아산병원 교육연구지원부장과 기획조정실장, 진료부원장을 두루 거치고, 2011년부터 2016년까지 6년간 서울아산병원장을 역임하며 병원 발전에 기여한 바 있다. 박성욱 신임 의료원장은 심장내과 관상동맥 스텐트 시술의 발전에 기



여한 협심증 치료의 권위자이다.  
 박신임 서울아산병원장은 병원 운영에 핵심이 되는 진료 지원실장과 기획조정실장을 거쳐 2017년부터 진료부원장을 역임해 왔다.

/이세경 기자 seilee@

## '이마주름'과 제거



홍중욱 원장의  
 성형이야기

나이가 들면서 노화로 인해 하나둘씩 생기는 표정주름은 푸근하고 인자한 인상을 풍기는 반면 노안으로 보이거나 화나고 지친 인상을 풍기기도 해 스트레스로 작용할 확률이 높다. 특히 이미지가 경쟁력인 요즘, 세대를 막론하고 젊고 탄력 있는 동안 외모를 가꾸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20~30대 젊은층이나 직장인들 사이에서 가장 수요가 높은 미용성형 시술로는 필러, 보톡스 등과 같은 비피성형과 주름제거술 등이 선호도가 높은 편이다. 사람은 누구나 30대 전후로 본격적인 노화가 진행되어 눈가, 입가, 목, 이마와 같이 피부가 얇고, 피지선이 발달하지 않은 부위부터 주름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노화의 진행 정도는 생활습관이나 피부제질, 관리방법

등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이때 평소 찡그리는 습관이 있거나 눈꺼풀 처짐 또는 안검하수로 인해 눈을 치켜뜨는 습관이 있다면 조기에 교정해주는 것이 좋다. 제때 교정하지 않고 방치하면 악시, 안검내반증, 눈가짓무름 등과 같은 안과질환을 유발하거나 이마주름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안검하수와 같이 선천적으로 눈 뜨는 근육이 약하거나 눈꺼풀 피부가 아래로 처지게 되면 시야확보를 위해 눈을 치켜뜨게 되는데, 습관적으로 이마근육(전두근)을 과도하게 움직이면 이마주름이 더 깊고 많아질 확률이 높다.

주름이 심하지 않다면 보톡스 시술만으로도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지만 노인성주름과 같이 주름이 이중, 삼중으로 깊게 자리 잡았다면 처음부터 이마거상술과 같은 수술요법을 시행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주름성형의 일종인 이마거상술은 늘어진 피부와 깊게 팬 이마주름을 동시

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좁은 이마를 넓게, 넓은 이마를 좁게 만들어줄 수 있다. 수술방법은 두피절개를 통해 눈썹부위까지 피부를 박리한 후 늘어진 피부를 팽팽하게 당겨 남은 피부는 잘라내고 봉합해주면 된다.

수술 후 만족도는 매우 높은 편이지만, 수술 부위가 워낙 광범위하고 피부를 박리하는 고도의 술기를 요하는 만큼 반드시 임상경험이 풍부한 성형전문 의에게 수술받는 것이 중요하다. 또 대머리면 흉터가 심하게 남을 수 있으니 시술을 자제하는 것이 현명하며, 이마가 폭 꺼졌다면 보형물을 삽입하는 '이마성형술'을 병행해야 볼륨감 있는 이마라인을 만들어줄 수 있다.

수술에 앞서 과거 실 리프팅을 이용해 이마성형술을 받고 이물감이나 극심한 통증, 피부표면이 움푹 패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하루빨리 해당 부위를 박리해 이물질을 일일이 제거하는 이물질제거술을 시행해야 좋은 예후를 기대할 수 있다.

/세민성형외과 원장 (서울중앙지방법원 의료중재 조정위원)

## 인사

- ◆(주)LG ○사장 승진 △이방수 사장 CSR팀장 ○부사장 승진 △정현욱 부사장 경영혁신팀장 ○전무 승진 △박장수 전무 △이재원 전무 통신서비스팀장 ○상무 선임 △김성기 상무 △이종근 상무 ○LG공익재단 ○부사장 승진 △정창훈 부사장 LG공익재단 대표
- ◆LG화학 ○사장 승진 손지웅 △생명과학 사업본부장 ○부사장 승진 △김성민 CHO △김정대 정도경영담당 △정근창 LG에너지솔루션 Battery연구소장 △김수령 LG에너지솔루션 품질센터장 ○전무 승진 △서중식 PO사업부장 △심규석 ABS사업부장 △김상민 아크릴·SAP사업부장 △조준형 첨단소재·신사업개발담당 △윤수희 Specialty Care사업부장 △박준성 대외협력 총괄 △신영준 LG에너지솔루션 ESS전지 사업부장 △서원준 LG에너지솔루션 소형 전지사업부장 △최석원 LG에너지솔루션 LGESWA법인장 △박해정 LG에너지솔루션)CHO △성환두 LG에너지솔루션 대외협력총괄 ○상무 신규선임 △이재명, 김항명, 신인호, 이동철, 주은정, 최호열, 이준호, 정철호, 김도균, 이상협 △LG에너지솔루션 이수형, Denny Thiemig, 최제원, 오성환, 김병습, 강성모, 임정환, 박필규, 성기은, 최재용, 조지훈, 김경훈, 이상현, 남주현, 수석연구위원 승진 이동훈
- ◆LG CNS ○전무 승진 △하태석 DTO사업부장 △최문근 CTO ○상무 신규선임 △이영미 이행혁신부문 클라우드인프라운영 담당 △이호균 이행혁신부문 개발혁신센터장 △이주열 CTO D&A 연구소장
- ◆LG헬로비전 ○상무 선임 △박은정 미디 어사업담당 △최효락 인사담당
- ◆LG경영개발원 ○사장 승진 △이명관 사장 LG인화원장 ○전무 승진 △안준홍 전무 ○상무 선임 △조재택 상무 △임우형 수석연구위원(상무)
- ◆LG생활건강 ○승진 △부사장 이형석 뷰티사업부장 △전무 장기룡 CHO ○신규 임원 선임 △지혜경 중국디지털사업부 문장 △강연희 색조연구소장 △공병달 물류총괄 △유영복 뷰티크리에이티브 부문장 △김인철 뷰티생산총괄
- ◆LG하우시스 ○상무 신규선임 △권상우 임석규 박영태
- ◆롯데그룹 (승진) ○대표이사 및 단위조직장 롯데그룹 식품BU장 사장 이영구 롯데푸드(주) 대표이사 내정 부사장 이진성 롯데쇼핑(주) 백화점사업부장 부사장 황범석 롯데케미칼(주) 기초소재 대표이사 내정 부사장 황진구 롯데제주(주) 경영혁신실장

- 부사장 이훈기 롯데제주(주) 커뮤니케이션 실장 부사장 고수찬 롯데칠성음료(주) 대표이사 내정 전무 박윤기 △(주)부산롯데호텔 대표이사 내정 전무 서정근 롯데대상사(주) 대표이사 내정 전무 정기호 △LC USA 대표이사 내정 전무 손태운 롯데베르살리스 엘라스토머스(주) 대표이사 내정 상무 황대식 (보임) ○대표이사 및 단위조직장 롯데미래전략연구소(주) 대표이사 내정 부사장 임병연 롯데제주(주) 준법경영실장 부사장 박은재 롯데제알에스(주) 대표이사 내정 전무 차우철 롯데쇼핑(주) 마트사업부장 전무 강성현 롯데정보통신(주) 대표이사 전무 박준형 △LC Titan 대표이사 내정 전무 박현철 롯데네슬레코리아(주) 대표이사 내정 상무 김태현
- ◆롯데제과 (승진) ○전무 △정재웅 ○상무 △배성우 △박경섭 ○상무 △허정규 △송경원 △Khayyam Rajpoot
- ◆롯데칠성음료 (승진) ○상무 △나한채 △이덕용 ○상무 △정용주 △서지훈 △송효진
- ◆롯데푸드 (승진) ○상무 △류하민 ○상무 △이석원 △류학희
- ◆롯데제알에스 (승진) ○상무 △이승주 △이원택
- ◆롯데중앙연구소 (승진) ○상무 △장종태
- ◆대흥기획 (승진) ○상무 △안세훈
- ◆롯데백화점 (승진) ○전무 △김대수 ○상무 △최영준 ○상무 △차용경 △서용석 △이주영
- ◆롯데마트 (승진) ○상무 △김영구 △조정욱
- ◆롯데슈퍼 (승진) ○상무 △강호진 △박우진
- ◆롯데하이마트 (승진) ○상무 △이찬일 ○상무 △김시호 △서강우
- ◆코리아세븐 (승진) ○상무 △이정윤 ○상무 △문대우
- ◆롯데홈쇼핑 (승진) ○상무 △신성빈 ○상무 △윤지환 △김덕영
- ◆롯데멤버스 (승진) ○상무 △정란숙
- ◆롯데글로벌로지스 (승진) ○상무 △정석기
- ◆롯데정보통신 (승진) ○상무 △고두영 ○상무 △조덕길 △이진호
- ◆호텔롯데 (승진) ○상무 △권혁범
- ◆롯데면세점 (승진) ○상무 △박성훈 ○상무 △이영직 △한정호
- ◆롯데렌탈 (승진) ○상무 △이강산 ○상무 △박세일
- ◆롯데물산 (승진) ○전무 △정호석 ○상무 △신창훈
- ◆캐논코리아비즈니스솔루션 (승진) ○상

- 무보 △최재호
- ◆롯데케미칼 기초소재사업 (승진) ○상무 △김우찬 △배광석 ○상무 △김광영 △곽기섭 △박세호
- ◆롯데케미칼 첨단소재사업 (승진) ○전무 △신성재 ○상무 △성낙선 ○상무 △권기해
- ◆롯데정밀화학 (승진) ○상무 △주우현 ○상무 △정명근
- ◆롯데건설 (승진) ○전무 △신치호 ○상무 △김중수 ○상무 △박기태 △장성재 △이상광 △강윤석 △류현일
- ◆롯데알미늄 (승진) ○상무 △손병삼
- ◆롯데액셀러레이터 (승진) ○상무 △이종훈
- ◆롯데인재개발원 (승진) ○상무 △변영오
- ◆롯데제주 (승진) ○전무 △손희영 ○상무 △김승욱 △김원재 ○상무 △송의홍 △임태형 △강성두
- ◆(주)코오롱 ○ 대표이사 △ 부회장 안병덕 ○ 전무 △ 옥윤석 ○ 상무 △ 안상현 이수진
- ◆코오롱인더스트리FnC부문 ○ 대표이사 사장 유석진 ○ 상무 △ 김정훈 △ 지성국
- ◆코오롱인더스트리 ○ 부사장 △강이구 △박태준 ○ 상무 △ 권용철 △박준호 ○ 상무 △ 공원석 △김호연 △이민혁 △임동훈 △최종욱 ○ 전무 △상무 박규대 △상무 보 전용주
- ◆코오롱글로벌 ○ 부사장 △ 이규호 ○ 전무 △ 송혁재 ○ 상무 △ 김일호 ○ 정사환 ○ 상무 △ 김태정 △ 류시성 △ 박재민 △ 박창규 ○ 이상만 ○ 전무 △ 전무 임성빈
- ◆코오롱글로벌 대표이사 사장 △ 김영범 ○ 전무 △ 김효순 ○ 상무 △ 김경호
- ◆코오롱플라스틱 ○ 상무 △ 박은하 ○ 상무 △ 이상엽 ○ 전무 △ 전무 박문희
- ◆코오롱오토모티브 ○ 상무 △ 김명진
- ◆그린나래 ○ 대표이사 사장 △ 이정윤
- ◆S&I 코퍼레이션 ○ 상무 선임 △ 이서준 상무 △ 정현 상무 △ 한광택 상무
- ◆지투알 ○ 상무 선임 △ 김동현 상무 △ 송광훈 상무 △ 이상권 상무
- ◆실리콘웍스 ○ 사장 승진 △ 손보익 사장 실리콘웍스 CEO

## 부음

▲강길례씨 별세, 오연근(경인일보 지역사 회부 부장)씨 모친상 = 26일 오전, 연천군 전곡 연천군보건의료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28일 오전 10시, 031-832-4474



www.newsis.com

뉴스시스 공감언론  
**NEWSIS**

뉴스시스는 대한민국 뉴스의 허브(Hub)입니다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를 비롯한 국내 주요신문과 포털·인터넷 매체 등 수많은 고객사가 뉴스시스와 손을 잡고 뉴스시스의 콘텐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뉴스시스가 전국 취재망을 통해 24시간 생산한 뉴스는 신문·잡지·인터넷 매체부터 정부기관 및 기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배포되어 대한민국 구석구석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뉴스시스는 하루 평균 2700여 개 기사와 사진을 제공합니다



출고기사. 1200여개



사진기사. 1200~1500개

뉴스시스는 젊습니다

생각이 젊고 행동이 젊은 뉴스시스!

시장독점에 대해 설립된 뉴스시스는 좀 더 능동적, 좀 더 적극적, 좀 더 공격적으로 세상을 바꿔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롯데그룹, 인적쇄신 결단... 성과주의 입각·50대 젊은 인재

가속화된 경제 위기 인사혁신 타개 임원인사 예년 대비 한달 가량 빨라 이영구 롯데칠성음료 대표 사장 승진

롯데그룹이 성과주의에 입각한 대대적인 인적쇄신을 단행했다. 50대 젊은 임원을 전진배치하고 임원 직급단계도 슬림화하는 등 과격적인 조직 개편을 실시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가속화된 경제 위기를 인사혁신으로 타개하겠다는 의지다.

롯데그룹은 26일 롯데지주를 비롯해 유통·식품·화학·호텔 부문 35개사 계열사의 2021년 정기 임원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임원인사는 예년 대비 약 한달 가량 앞당겨졌다. 코로나19 등으로 국내외적으로 매우 불확실해진 경영환경에 대비해 내년도 경영계획을 조기 확정하고 실천하기 위한 차원에서다.

### ◆혁신 가속화 하기 위한 인적쇄신

롯데는 지난 8월 창사 이후 처음으로 비정기 인사를 단행하며 변화를 위한 의지를 보인바 있다. 황각규 부회장이 용퇴하고 롯데지주 경영혁신실 임원이 전체 교체되는 등의 과격적인 인사였다.

이번 임원인사는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한 대대적인 인적쇄신과 임원 직제



롯데그룹 이영구 식품BU장 사장



롯데쇼핑 황범석 백화점사업부 부사장



롯데지주 이훈기 경영혁신실장 부사장



롯데지주 고수찬 커뮤니케이션실장 부사장



롯데케미칼 부사장 황진구 기초소재 대표이사 내정



롯데푸드 부사장 이진성 대표이사 내정



롯데칠성 전무 박윤기 대표이사 내정



롯데상사 정기호 대표이사 전무

슬림화가 특징이다. 롯데는 철저한 성과주의에 입각한 인사로 승진 및 신입 임원 수를 지난해 대비 80% 수준으로 대폭 줄였다.

임원 직급단계도 기존 6단계에서 5단계로 축소하고, 직급별 승진 연한도 축소 또는 폐지했다. 젊고 우수한 인재들을 조기에 CEO로 적극 배치하기 위한 조치다. 부사장 직급의 승진 연한이 폐지됨으로써, 1년만에 부사장에서 사장으로 승진할 수 있게 됐다. 기존 상무보A와 상무보B 2개 직급은 '상무보' 직급으로 통합했다. 신입 임원이 사장으로 승진하기까지는 기존 13년이 걸렸지만, 이번 직제 개편을 통해 승진 가능 시기가 대폭 앞당겨졌다.

### ◆50대 초반의 젊은 CEO 전면 배치

롯데그룹의 식품 분야를 이끌었던 식품BU장 이영호 사장이 후배들을 위해 일선에서 용퇴했다. 신입 식품BU장에

는 이영구 롯데칠성음료 대표이사 사장으로 승진하며 보임했다.

이영구 사장은 1987년 롯데칠성음료에 입사해 롯데알미늄, 그룹 감사실 등을 거쳤다. 2009년부터 롯데칠성음료 전략부문장과 마케팅부문장을 역임했다. 2017년부터 롯데칠성음료 대표를, 2020년에는 음료와 주류 부문을 통합해 대표를 맡아왔다.

롯데그룹 혁신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롯데지주의 실장도 일부 변화가 있었다. 커뮤니케이션실장으로 롯데건설의 고수찬 부사장이 승진 보임했다. 준법경영실장으로는 컴플라이언스 강화를 위해 검사 출신 박은재 변호사를 부사장 직급으로 영입했다. 롯데지주는 최근 2년 사이 6개 실 수장들을 모두 교체하며 위기 극복을 위한 변화에 나섰다.

이번 임원인사에서는 50대 초반의 젊

은 임원들을 대표이사로 대거 등용했다. 시장의 니즈를 빠르게 파악하고, 신성장동력을 적극적으로 발굴해낼 수 있는 젊은 경영자를 전진 배치해 위기를 타개하겠다는 신동빈 회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롯데칠성음료의 신입 대표이사는 50세의 박윤기 경영전략부문장이 전무로 승진, 내정됐다. 롯데네슬레 대표이사였던 강성현 전무도 50세로 롯데마트 사업부장을 맡게 됐다. 롯데푸드 대표이사에는 롯데미래전략연구소장을 역임한 51세 이진성 부사장이, 롯데케미칼 기초소재 대표이사에는 LC USA 대표이사였던 52세 황진구 부사장이 승진 내정됐다.

신입 롯데지알에스 대표이사에 내정된 롯데지주 경영개선팀장 차우철 전무와 롯데정보통신 대표이사로 보임하는 DT사업본부장 노준형 전무도 52세로,

50대 초반의 대표이사들이 대거 보임한 것이 눈에 띈다.

롯데미래전략연구소에는 롯데케미칼 기초소재 대표 임병연 부사장이, 부산롯데호텔 대표에는 호텔롯데 국내 영업본부장 서정곤 전무가 내정됐다. LC USA 대표이사에는 손태운 전무가 내부승진 했고, LC Titan 대표이사에는 롯데케미칼 기초소재 생산본부장 박현철 전무, 롯데베르살리스 대표이사에는 롯데케미칼 기초소재 안전환경부문장 황대식 상무가 각각 내정됐다. 롯데네슬레 대표이사에는 롯데칠성음료 글로벌본부장 김태현 상무가 내정됐다.

롯데는 롯데제과 파키스탄 콜슨 법인의 카암 라즈프 법안장을 신규 임원으로 선임하며, 글로벌 임원 확대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원문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 대한항공 송현동 땅 매각 합의식 연기

# 하루 전 수정 부당 vs 계약시기 협의 필요

〈대한항공〉

〈서울시〉

서울시 조정안 수정 요구에 연기 "계약시기 관련하여 유동적 상황"

대한항공 "일방적 요구... 무책임"

대한항공 송현동 땅 매각을 위한 최종 합의식이 연기되면서, 하루 전날 조정안의 문구 수정을 요구한 서울시에 대해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민 권익위원회 주재로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서울시·대한항공·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각 최종합의식이 서울시의 조정안 관련 '문구 수정' 요구로 인해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권익위와 서울시는 이번 최종 합의식이 연기된 배경에 대해 구체적인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당초 알려졌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한 '제3자 매입 방식'에는 이견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권익위 관계자는 연기 이유에 대해 "관계 기관 간에 이견이 갑자기 발생했기 때문"이라며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해 잠정 연기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송현동을 매입해 대한항공에 대금을 지불하고, 서울시는 송현동 부지를 시유지와 교환하는 큰 틀에서는 문제가 없다"며 "다만 합의서 문구 중 계약시기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협의서에 담기는 내용이 유동적인 상황이다.



대한항공이 소유한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

계약 시기를 확정적으로 하기 위해 세부 협의가 필요한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 최종 합의식이 연기된 것은 서울시가 조정안의 일부 문구 수정을 최종 합의식 하루 전날(25일) 요구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가 작성한 조정문에는 계약시점과 대금 지급 시점, 이행청구권에 대한 조항 등이 명기됐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정안은 지난 16일 공문을 통해 대한항공과 LH, 서울시에 송부됐고, 권익위는 각 당사자의 수정의견을 반영했다. 이후 지난 23일 대한항공과 LH는 조정안에 이견이 없다는 의사를 공문으로 최종 회신했다.

그런데 서울시가 지난 25일 계약시점을 특정하지 않으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한다'라는 문구로 교체하자고 의견을 밝힌 것이다. 최근 송현동 부지와 맞바꿀 시유지 후보로 언급되고 있는 마포구 서부순전면허시험장 관련 반발이 일면서 시의회

의 동의가 불투명해지자 이 같은 수정을 요구했다는 분석이다. 조정문의 최종 서명을 위해서는 시의회의 사전 또는 사후 동의가 필요하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의식 연기 관련 "서울시가 시의회 동의도 어려울 수 있다며 '노력한다'라는 문구로 조정문을 수정하자고 하는 것은 향후 시의회의 부동의를 방패 삼아 조정문을 이행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시의회 통과가 부정적이라고 하면서 확약도 해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결국 아무것도 못 해준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비판했다.

이어 "결국 서울시만 믿었다가 내년엔 돈을 지급받지 못하면 대한항공은 자구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 서울시가 이번 송현동 부지 매각이 대한항공 임직원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

## 중기부, 뉴딜 연계 지역혁신 기업 육성

### 2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정부가 지역 발전과 산업을 이끌 유망중소기업 100곳을 발굴하고 이들에게 1조4000억원을 지원한다.

비수도권 지역에서 시·도별로 육성하고 있는 지역주력산업 48개도 '지역균형뉴딜'과 연계해 재편한다.

지역에 있는 민간, 공공기관 등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지역뉴딜펀드'도 권역별로 조성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역균형 뉴딜 추진을 위한 지역혁신 중소기업 육성전략'을 26일 연 제2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표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이번 전략은 지역균형 뉴딜의 확산을 가속화하고 심화하는 지역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것"

이라며 "오는 2025년까지 지역의 대표 앵커기업인 '지역혁신 선도기업' 100개를 육성하고, 8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역혁신 중소기업 육성전략은 ▲지역균형 뉴딜 중심 지역주력산업 개편 ▲지역뉴딜 벤처펀드 조성·지역주력산업 기업 기술개발, 자금·판로·인력 등 지역균형 뉴딜기업 지원 ▲규제자유특구 등 지역균형 뉴딜 거점 조성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4가지 추진전략과 17개 세부 추진과제가 담겼다.

이 가운데 지역균형 뉴딜 중심 지역주력산업 개편은 ▲디지털 뉴딜 관련 20개 산업·그린 뉴딜 관련 19개 산업 선정 ▲기존 산업 9개의 고부가가치화 병행 추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김승호 기자 bada@

오늘의 날씨

11월 27일(금)

음력 : 10월 13일

수도권 날씨

2~7°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해돋이 / 07:24 | 해질 / 17:15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 롯데마트, 새벽배송 확대... 서울·경기남부·부산까지 OK!

경기 의왕·부산 오토프레시센터 '새벽배송' 위한 전용센터로 운영 내달 1일부터 '새벽에 ON' 확대 올 주문량 3배, 내년 4배 증가 기대

롯데마트가 비대면 소비문화 추세에 따라 배송 서비스를 강화한다. 기존 주문 후 2시간 이내에 배송하는 '바로 배송', 매장 내에서 주문 상품을 받아볼 수 있는 '매장 픽업', '냉장 상품 스마트 픽업', 차에서 내리지 않고 주문 상품을 차에서 받는 '드라이브 스루' 외에 새벽 배송을 확대 운영하는 것이다.

롯데마트는 오는 12월 1일부터 경기 남부 및 서울과 부산 전 권역을 대상으로 새벽 배송 서비스인 '새벽에 ON'을 확대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롯데마트의 기존 새벽 배송은 김포에 위치한 온라인 전용센터를 통해 경기 서부지역과 서울 일부 지역만 가능했으나, 롯데슈퍼가 운영하고 있던 의왕, 부



롯데마트물 새벽배송 전용 센터.



롯데마트, 새벽배송 확대 운영

/롯데쇼핑

산의 오토 프레시 센터를 롯데마트가 운영하게 되면서 새벽배송 범위가 확대됐다. 특히, 경기 의왕과 부산의 오토 프레시 센터는 일반 주간 배송이 아닌 오로지 '새벽 배송'을 위한 전용 센터로 운영한다.

최근 온라인 주문에서 신선 식품이 차지하는 구성비가 꾸준히 증가해 2020년에는 51.7%까지 증가했고, 신선 구매 조건의 1순위가 품질인 만큼 품질 우수 전략의 대형마트로서 기회 요소로

판단해 새벽 배송의 확대에 나선 것이다.

롯데마트는 이번에 새벽배송 서비스를 확대하면서 그로서리 전문몰의 강점을 살린 '3일돼지', '황금당도 과일' 등의 차별화된 신선 전문 상품과 새벽 배송 특화 카테고리인 간편 대용식, 음료 등의 상품을 강화한다. 새벽 배송은 아침 식사 및 간편식을 위한 수요가 많은 점을 고려해 밀키트, 간편식, Deli 상품군을 대폭 강화했다.

롯데마트는 이번 새벽 배송 서비스 확대로 주문량이 기존 보다 3배, 2021년에는 4배까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부산지역 전 권역을 수용할 수 있다는 점은 타 이커머스 업체와 차별화된 강점으로 부산 지역의 새벽 배송 서비스를 선점하겠다는 전략이다.

롯데마트는 새벽 배송 외에도 온라인 주문 상품에 대해 물건을 받아 볼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특히 '바로 배송'은 '고객의 냉장고가 되어드립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온라인 주문 이후 픽킹, 팩킹까지 30분안에 배송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 최대 2시간 안에 주문 상품을 받아볼 수 있으며, 신선식품을 중심으로 간편식, 반찬 등 그로서리 상품에 최적화된 혁신적인 배송 서비스다.

롯데마트는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별도의 온라인 전용 센터의 건립이 아닌 기존 자산인 점포 중심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점포는 크게 '스마트스토어'와 '다크스토어'로 나뉘며, 중계, 광고처럼 매장 내에 피킹 스테이션과 컨베이어 벨트, 후방 자동화 패킹의 설비가 들어간 '스마트 스토어'는 연내 2개를 추가로 오픈, 21년에는 12개까지 수를 늘려운영할 계획이다.

'스마트스토어' 개발과 동시에 후방의 자동화 패킹 설비를 설치하는 '다크스토어' 형태는 연내 14개, 21년에는 29개까지 오픈할 방침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 “환전대금 편의점서 24시간 수령하세요”

BGF리테일-유핀테크허브, 업무제휴 입국 외국인에 송금대금 지급 서비스

은행이 아닌 편의점에서 24시간 언제든지 환전 대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됐다.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은 핀테크 전문기업 유핀테크허브와 온·오프라인 채널을 이용한 핀테크, 테크핀 사업을 위한 업무 제휴를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으로 외환거래 및 해외송금 서비스의 개발 및 시행, 제휴사업 신규 발굴 및 확대, 플랫폼 채널 제휴, 기술 협업 및 공동 특허 진행 등에 관한 금융 사업을 강화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외환분야 신사업 규제 신속 확인·면제 제도를 통해 ▲편의점을 통한 환전대금 수령 ▲외국인 관광객의 ATM을 통한 송금대금 수령 ▲무인환전기기를 통한 송금서비스 제공, 송금 네트워크 공유 서비스 이용



BGF리테일 송지택 혁신부문장(왼쪽)과 유핀테크허브 이재표 대표가 25일 편의점 핀테크 사업 업무제휴 협약을 맺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BGF리테일

등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했다. 이러한 흐름에 CU와 유핀테크허브는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위원회의 최종 승인을 완료하고 외화 환전 서비스 개발에 본격 돌입한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앞으로 온라인으로 환전을 신청한 뒤 가까운 편의점에서 24시간 언제든지

환전 대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CU는 내년 상반기 중 외화 환전 서비스의 도입을 목표로 이달부터 유핀테크허브와 시스템 개발 및 제반 사항에 대한 협력을 추진하고 향후 관련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공동 특허 출원까지 계획하고 있다. /신원선 기자

## 쿠팡, 직구·직수입 상품 최대 55% 할인

29일까지 '블랙 프라이데이' 기획전

쿠팡이 29일까지 해외 직구 및 직수입 상품들을 최대 55% 할인된 가격에 선보이는 '블랙 프라이데이' 기획전을 연다. 쿠팡 로켓직구와 직수입 상품이 대상이며, 인기 건강식품은 물론 TV, 블루투스헤드폰, 인스탁스카메라 등 가전/디지털 상품까지 쿠팡이 엄선한 글로벌 셀렉션들로 준비됐다.

로켓직구 상품은 건강식품, 뷰티, 홈인테리어, 가전/디지털 등 총 9개 카테고리에 걸쳐 600만여개를 선보인다. 삼성TV, 다이슨, 나우푸드 등 유명 브랜드의 인기 상품이 있으며, 최대 55%의 할인 혜택과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2만



원 할인 쿠폰 할인을 제공한다. 행사 기간 동안 매일 오전 11시 타임 할인과 매일 새로운 추가 할인 찬스도 제공한다. 특히 매일 오전 11시 타임 행사에서 삼성전자 스마트TV를 3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빠른 배송 또한 장점이다. 로켓와우 회원이면 단 한 개의 상품도 무료배송이며, 평균 3~4일, 도서산간지역의 경우도 7~10일 이내에 상품을 받아 볼 수 있다. /신원선 기자

## 오리온, 크리스마스 한정판 '디저트 초코파이' 출시

오리온은 프리미엄 냉장디저트 '디저트 초코파이'의 크리스마스 시즌 한정판 '크리스마스 디저트 초코파이'를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맞아 가족 중심의 '휴파티'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에 착안, 커피나 음료와 함께 간단히 즐길 수 있으면서도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내는 디저트를 선보인 것이다. /원은미 기자 silverbeauty@



## GS25 '카카오톡 주문하기' 배달 확대

5000여개 매장서 본격 서비스 오전 11시~오후 11시, 1만원부터

편의점 GS25가 26일부터 '카카오톡 주문하기'를 통해 5000여개 매장서 배달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전개한다.

GS25는 올해 5월에 편의점 업계 최초로 4500만 이용자를 보유한 모바일 플랫폼 카카오톡과 제휴를 시작하며 수도권 주요상권 내 20여개 점포에서 테스트 운영을 진행한 바 있다. 이에 매일 증가하는 배달서비스 매출 및 주문건수, 판매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들의 근거리 소량배달에 대한 니즈를 확인해 이번 5000점 오픈을 추진하게 됐다.

카카오톡 주문하기 이용을 원하는 고객들은 카카오톡 내의 해당 채널이나 '더보기' 탭에서 '주문하기' 메뉴를 선택하면 된다. 배달 가능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11시까지로, 최소주문금액은 1만원, 기본 배송비는 3000원이다.

카카오톡 주문하기로 구매가능한 GS25 제품은 프레시푸드(Fresh Food), 즉석간편식, 음료, 유제품, 아이스크림, 스낵을 비롯해 일상용품, 위생용품 등 약 800여종에 달한다. 이 밖에도 카카오톡 주문하기 전용 프로모션과 수십



직원이 GS25 매장에서 카카오톡 주문하기 그랜드오픈 기념 홍보물을 들고 있다. /GS리테일

종류의 1+1 행사상품, 유튜브 레시피상품 등을 운영하며 고객들의 만족감을 높임으로써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카카오톡 주문하기의 배달수행은 지역밀착형 친환경 건강배달 플랫폼으로 고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우리동네달리버리'와 배달대행업체 '부릉' 및 '바로고'가 맡는다. 일반인 도보 배달플랫폼 '우리동네달리버리'의 배달자 '우친(우리동네달리버리 친구)'은 올해 8월 19일 론칭 후 10월 말까지 약 4만명이 모집됐다. /신원선 기자

## 갤러리아백, 포레르빠쥬 '어반나이트' 공개

국내독점 프랑스 명품 신규컬렉션

갤러리아백화점이 국내 독점 판매권을 갖고 전개하는 프랑스 명품 브랜드 포레르빠쥬가 카무플라주 패턴을 활용한 신규 컬렉션 '어반나이트'를 선보인다.

신규 컬렉션의 특징은 포레르빠쥬 무기제조 헤리티지와 고대 그리스 신화 속 여전사와 워리어들의 유니폼, 그리고 파리 루브르 석화장식에서 영감을



얻어 카무플라주 패턴을 포레르빠쥬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한 것이 특징이다. /신원선 기자

# 등록금 年 150만원으로 학사 취득 언택트시대 '사이버대학' 급부상

(본인 부담)



등록금 저렴하고 장학 혜택 다양  
온라인 교육시스템, 노하우 풍부  
내달 1일부터 신·편입생 모집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사태는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을 부추겼다. 사교육뿐만 아니라 공교육에서도 '온라인 강의'가 대책으로 급부상했다. "교육의 미래는 전통적인 대학의 캠퍼스 밖에 있다". 미래경영학자 피터 드러커 교수가 30여 년 전 예측했던 '미래대학'의 모습이 현실화한 셈이다.

이런 상황 속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핵심 교육 트렌드로 떠오른 게 바로 사이버대학이다. 초·중·고교를 비롯해 대학들도 비대면 온라인 수업을 시도하며 시행착오를 겪고 있지만, 사이버대학은 지난 20여년 간 쌓아온 온라인 교육 노하우를 바탕으로 오히려 주목받고 있다.

지난 2001년 평생교육법에 근거해 평생교육기관으로 설립된 사이버대학은 2010년 고등교육법에 적용, 고등교육기관으로 전환되며 그 역할과 입지를 넓혀왔다. 사이버대학의 입학생 수는 지난 2002년 9920명에서 2021년(입학 정원 기준) 4만 2751명으로

주요 사이버대학 입시 일정·모집인원 \*가나다순

대학명	원서접수·서류제출	합격자발표	모집인원		
			1학년	2학년 편입	3학년 편입
경희사이버대	1차: 2020.12.1(화)~2021.1.12(화)	2021.1.18(월)	1,600명	437명	1,400명(별도) 676명(일반)
	2차: 2021.1.22(금)~2021.2.16(화)	2021.2.22(월)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	1차: 2020.12.1(화)~2021.1.15(금)	2021.1.21(목)	850명	246명	140명(별도) 285명(일반)
	2차: 2021.1.28(목)~2021.2.16(화)	2021.2.22(월)			
사이버한국외국어대	1차: 2020.12.1(화)~2021.1.14(목)	2021.1.21(목)	720명	80명	880명(별도) 74명 (일반)
	2차: 2021.2.1(월)~2021.2.16(화)	2021.2.23(화)			
원광디지털대	1차: 2020.12.1(화)~2021.1.12(화)	2021.1.19(화)	855명	89명	645명(별도) 42명(일반)
	2차: 2021.1.26(화)~2021.2.16(화)	2021.2.22(월)			
한양사이버대	정시: 2020.12.1(화)~2021.1.12(화)	2021.1.18(월)	2,000명	237명	1,240명(별도) 336명(일반)
	추가: 2021.1.22(금)~2021.2.16(화)	2021.2.22(월)			

급증했다. 전국 사이버대학을 거쳐 간 동문까지 합하면 약 32만여명 이른다.

사이버대학의 인기가 높아질수록 입학 연령층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재교육·평생교육을 선도하던 사이버대학은 일반대와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사이버대학에 재입학하는 이른바 U턴 입학자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그러나 최근 고교 졸업생의 입학도 증가 추세다. 2019년 기준 10대 입학생은 4.

7%로 ▲20대 초 약 18% ▲20대 후반 약 16% ▲30대 약 19% ▲40대 약 24%, 50대 이상이 약 18%다.

저렴한 등록금과 풍부한 장학혜택은 매력력을 더한다.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연간 평균 등록금은 270만원으로 일반대학 등록금의 3분의 1 수준이다. 학생 1인당 교내외 장학금이 평균 100만~110만원 지급되는 점을 고려하면 연 150만원 내외면 대학수업을

들 수 있는 셈이다. 한국장학재단의 장학금도 수혜할 수 있어 누구나 공부할 의지만 있으면 체계적인 교육 커리큘럼 속에서 저비용 고효율의 학사관리를 받을 수 있다.

국내 주요 사이버대학들은 12월 1일부터 2021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 모집을 일제히 시작한다. 사이버대학별로 1차와 2차로 구분해 모집한다. ▲경희사이버대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 ▲사이버한국외대 ▲원광디지털대 ▲한양사이버대 등 21개 사이버대학에서 4만 2751명을 뽑는다. (표: 2021학년도 주요 사이버대학 입시 일정 참고)

김중렬 한국원격대학협의회 회장(사이버한국외대 총장)은 "사이버대는 온라인 실시간 세미나 시스템, 온라인 논문지도 시스템, 이공계 학과 온라인 실습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도입한 온라인 교육 플랫폼도 개발·적용할 계획"이라면서 "사이버대는 향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취업 후진학, 평생 고등교육체제 요구 증가, 전문성 향상과 경력개발 교육, 성인 학습자 재교육과 직무 전환 교육을 할 수 있는 최적의 고등교육기관"이라고 강조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 '공공안전관리전공' 軍 핵심인재 양성... 직업 군인에 딱!



직업군인 일·학습 병행에 안성맞춤  
이론·실무 융합해 교육과정 최적화  
내년 1월12일까지 온라인으로 모집

경희사이버대학교(총장 변창구)는 12월 1일부터 올해 신설된 청소년·가족전공 및 뷰티·패션산업마케팅전공, 군 핵심인재를 양성하는 재난방재과학 및 공공안전관리전공 등 36개 학과(전공)에서 2021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을 모집한다.

원서접수는 경희사이버대 입학지원센터 홈페이지(www.khcu.ac.kr/ipsi/) 통해 내년 1월 12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모집 학과(전공)는 IT·디자인융합학부(컴퓨터정보통신공학전공, AI사이버보안전공, ICT융합콘텐츠전공, 산업디자인전공, 시각미디어디자인전공) ▲미래인간과 학스쿨(재난방재과학전공, 공공안전관리전공) ▲보건의료관리학과 ▲한방건강관리학과 ▲휴머니티학과 ▲NGO사회혁신학과 ▲미디어문예창작학과 ▲사회복지학부(사회복지전공, 노인복지전공, 아동·보육전공, 청소년·가족전공) ▲상담심리학과 ▲스포츠경영학과 ▲실용음악학과 ▲일본학과 ▲중국학과 ▲미국문화영어학과 ▲한국어문화학과 ▲한국어학과 ▲문화예술경영학과 ▲미디어영상홍보학과 ▲마케팅·리더십경영학부(마케팅·지속경영리더십전공,



경희사이버대 서울 캠퍼스 전경.

뷰티·패션산업마케팅전공) ▲글로벌경영학과 ▲세무회계학과 ▲금융부동산학부(금융경제전공, 도시계획부동산전공) ▲호텔·레스토랑경영학과 ▲관광레저항공경영학부(관광레저경영전공, 항공·공항서비스경영전공) ▲외식조리경영학과다.

대학원은 오는 12월 4일까지 2021학년도 전기 신·편입생을 모집한다. 모집은 호텔관광대학원 ▲호텔외식MBA전공 ▲관광레저항공MBA전공과 문화창조대학원 ▲미디어문예창작전공 ▲글로벌한국학전공 ▲문화예술경영전공 ▲미래시민주도·거버넌스전공에서 진행된다.

◆'인류 안전 지킴이' 재난방재과학 공공안전관리전공은 직업 군인이 학업을 병행하기 최적화된 전공이다. 이론적, 실무적 지식을 겸비하고 전문성과 리더십을 갖

춘군 핵심인재를 양성하고 있으며 취업, 창업, 창직 등 전직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군 전역 후 성공 리더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군 조직과 심리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상담과 코칭 능력을 갖춘 리더 양성과 군복무 후에도 관련 산업체 및 기관에 취업할 수 있는 국방분야의 중견 우수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재난방재과학전공은 태풍·지진·화재·산업재해와 같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이론과 실무적 지식을 갖춘 소방·방재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또한, 화공·전기·가스·위험물 안전 및 작업 환경에 대한 공학적 지식을 갖춘 전문 안전관리 능력을 겸비한 인재를 키운다.

소방방재 및 산업안전 두 분야의 통합 커리큘럼을 운영 중이며 실무형 전문기를 양성



변창구  
경희사이버대 총장

하기 위해 최적화된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공공기관 온라인 직무교육 등 대학의 다양한 사회 책무 수행

경희사이버대는 지난 2015년 도부터 경희 프로그램 'Engagement 21'을 통해 대학교육 기회의 문턱 낮춰 다양한 계층에게 고등교육을 제공해왔다. 한국혈우재단, 한국한부모연합,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사)다문화종합복지센터 등과 지속적인 협약을 통해 대학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있다.

'Engagement 21' 일환으로 올해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정부 정책사업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온라인 직무교육을 진행했다.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종사자에 대한 새로운 온라인 직무교육 콘텐츠를 제작해 운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정책사업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663 개소(16개 시·도 광역지원기관 및 647개 개소 수행기관)에 종사하는 전담사회복지사 약 1300여명과 생활지원사 약 1만 8700명, 간호직 공무원 약 1000여명에게 온라인 직무교육을 송출하며 대학의 책무를 이행하고 있다.

/이현진 기자

# 'in 서울 4년제' 문화예술 특성화... 한류 인재 육성

## Digital 서울문화예술대학교

항공기, 바리스타, 운동, 조리실 등 사이버대학 최대 규모 실습실 구축 대면·비대면 융합교육으로 '주목'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총장 이윤석)는 지난 20년간 실무 중심의 대면·비대면 혼합 교육 해 온 서울권 4년제 문화예술특성화대학이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활용해 세계 속 한류문화를 선도하는 대학으로 거듭나고 있다.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는 특히 문화예술 분야에 특화돼 있다. 문화예술 분야 특성화 대학으로 국내 최고 시설의 전문 스튜디오에서 제작하는 우수한 교육 학습콘텐츠와 사이버대학 최대 규모의 실습실을 활용한 대면·비대면 혼합교육을 통해 인서울 4년제 대학교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전 세계 모든 대학의 교육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



항공서비스학과 기내실습실.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 서울캠퍼스 본관.

는 상황에서, 비대면 양방향 수업을 진행하는 등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춰 교육영역을 확장하며 주목받고 있다.

해외 교육시장으로의 진출도 목전에 있다. 지난 2009년 재외동포재단과 750만 재외동포 교육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며 이후 세종학당재단, 종이문화재단 등과 MOU를 체결해 전 세계 한글학교 교사 및 세종학당 교원을 지원하고 있다.

전 세계 대륙별/나라별 한글학교협의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있으며, 사이버 연수와 정운영 등을 통해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전 세계에 보급하는 데 전력을 다해 왔다.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는 이런 활동을 바탕으로 명실상부 문화예술 선도대학으로서 위상을 확고히 다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양한 실습실과 풍성한 장학혜택...항공보안학과 신설

주목할 학과로는 2021학년도 신설학과

인 항공보안학과가 있다. 항공보안은 국가안보 및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인 만큼 각종 보안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다양한 실무교육을 통해 위기관리대체능력이 뛰어나고 현장형 실무인재인 보안전문가 양성에 목표를 둔다. 우수한 교육 콘텐츠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시공간을 초월한 학습을 제공하면서도 장학혜택이 풍성해 경제적인 부담도 한층 덜 수 있다.

문화예술 분야에서 특화된 대학인 만큼 비대면 교육 활용 스튜디오, 아트홀과 같은 전문 공연장과 ▲연극영화학과 소극장 ▲토탈미용예술학과 미용 실습실 및 피부관리실 ▲실용음악학과 합주실 및 녹음실 ▲모델학과 모델위킹 실습실 및 아외 런웨이 실습실 ▲반려동물학과 반려동물훈련 실습실, 이천실습장, 광주 체육시설 ▲조리학과 조리 및 바리스타 실습실 ▲항공정비학과 전자 제어 및 기계기관 실습실 ▲항공서비스학과



이경남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 홍보차장

항공기기내서비스 실습실, VR 실습실 등 우수한 시설과 실습실을 두루 갖췄다.

◆학업계획서 작성 및 학과별 학업소양평가 실시해 선발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는 12월 1일(화)부터 2021학년도 1학기 모집을 시작한다. 미래문화예술계열 ▲연극영화학과 ▲토탈미용예술학과 ▲사회체육학과 ▲실용음악학과 ▲건축공학과 ▲모델학과 ▲시각영상디자인학과 ▲실버문화경영학과 ▲한국어교육학과 ▲반려동물학과 ▲조리학과 ▲항공정비학과 ▲항공서비스학과 ▲항공보안학과 등이 개설돼 있다.

1학기 지원 자격은 신입학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법령에 의해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이다. 2학년 편입학은 ▲전문대 졸업 혹은 전문대 및 4년제 대학에서 1학년(2학기) 이상을 수료 ▲35학점(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 행체 학습자 포함) 이상을 이수, 3학년 편입학은 ▲전문대 졸업 혹은 4년제 대학 2학년(4학기) 이상을 수료 ▲70학점(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 행체 학습자 포함) 이상을 이수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특히 신·편입학 전형은 학업계획서 작성 및 학과별 상이한 학업소양평가를 실시해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이현진 기자

# 국내 유일 '외국어 특성화' 사이버대학... 글로벌 인재 양성

##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CYBER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사이버대학 중 외국어·언어 학과 최다 미 대학과 교류... 日엔 교환학생 파견도 '집중학기제' 운영... 탄력적 학위 취득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총장 김종렬)는 세계 3위 규모 언어교육기관인 한국외국어대가 66년간 쌓아온 교육 노하우를 온라인상에 체계적으로 반영해 설립됐다. 한국외국어대 도서관 및 캠퍼스 모든 시설을 공유하고, 한국외대와의 학점교류 등을 지속하고 있다.

◆국내를 넘어 세계로

사이버한국외대는 국내 유일의 '외국어 특성화' 사이버대학 명성에 걸맞게 국내 사이버대학 중 영어,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스페인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등 가장 많은 외국어·언어 학과를 보유하고 있다.

영어학부는 미국 오하이오대(Ohio University)와 협약을 맺고 TESOL&TEYL, Business English 공동 수료증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어학부는 일본 도호쿠분교대



사이버한국외국어대 강의 모습.



사이버한국외국어대 전경

학에 학점교류 교환학생을 파견하고 있다.

'집중학기제'를 운영해 학생 개인 상황에 따라 학업기간을 단축해 탄력적으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이용할 경우 신입생은 3년, 3학년 편입생은 1년 반 만에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시간적, 물리적인 제약으로 학업에 집중하기 어려운 학생들의 상황을 고려한 '최저수강학점제도', '재학연한 제한 폐지' 등을 통해 학습 부담을 줄였다.

◆사이버한국외대생의 내일을 밝히는 등불, NEED BASED 장학제도

사이버한국외대는 학생들의 직업, 나이, 학습여건 등을 고려한 세분화된 교내 장학제도인 'Need Based 장학제도'를 마련해 학생들이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실제로 재학생 3명 중 2명 이상이 장학금 혜택을 받고 있다.

직장인과 해외직장인, 전업주부, 인제, 동문, 군가족, 새터민을 위한 장학금뿐만 아니라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여성가장을 위한 희망장학금이나 다문화장학금, 진학장려장학금, 산업체 및 군 위탁학생을 위한 위탁교육장학금 등을 통해 배움에 대한 열정이 있는 학생들을 지원하며, 교내 장학금 외에도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가장학금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 및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특수교육대상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농어촌학생 등에게 입학 전형료를 면제해 준다.

사이버한국외대는 오는 12월 1일(화)부터 2021년 1월 14일(목)까지 2021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을 모집한다. 모집학부·학과는 ▲영어학부 ▲중국어학부 ▲일본어학



김종렬  
사이버한국외국어대 총장

부 ▲한국어학부 ▲스페인어학부 ▲베트남·인도네시아학부 ▲마케팅·경영학과 ▲산업안전학과 ▲다문화·심리상담학과 등 총 9개 학부·학과다.

모집인원은 정원 내 일반전형 1754명과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지방자치단체, 공사·공단 및 국내 우수 기업 등 위탁교육 협약 체결기관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산업체 위탁, 부사관, 장교, 군무원 등 직업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군 위탁을 비롯해 교포 자녀 및 해외근무자 자녀, 북한이탈주민 및 외국인, 특수교육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농어촌학생 등 정원 외 특별전형 2989명으로 총 4743명의 학생을 선발한다.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 이상의 학력 소지자나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이라면 수능 및 고교 내신 성적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하다. 입학전형 평가항목은 자기소개서 70점, 학업소양검사 30점이며, 이를 합산해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선발한다. 사이버한국외대 신·편입생 모집에 대한 자세한 요강 및 절차는 학교 입학홈페이지(go.cufs.ac.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메일(ipsi@cufs.ac.kr)이나 전화(02-2173-2580)로 문의할 수 있다.

/이현진 기자

# 17개 특성학과, 온라인 교육시스템... 해외서도 '엄지척'



온라인 강의시스템 해외 대학에 수출  
웰빙건강·한국문화·실용복지 3개학부  
주부·만학도·직장인 등 장학 제도 풍성

원광디지털대학교(총장 김규열)는 웰빙건강·한국문화·실용복지 분야의 3개학부 17개 특성화학과를 운영하는 특성화학과 중심의 4년제 사이버대학으로 현재까지 약 3만500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원광디지털대의 교육콘텐츠는 해외에서도 인정받았다. 원광디지털대는 교육부 산하 KERIS에서 추진하는 '아세안 대학 이러닝 지원 사업'의 회원대학으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 연속 선정됐다. 라오스국립대학교에 원광디지털대의 뛰어난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수출하며 케이-에듀케이션(K-Ed Education)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렸다.

더불어 교육부에서 진행하는 '사이버대학 성인 학습자 역량 강화 교육 콘텐츠 개발 사업'에도 2회 연속 선정됐으며 지난 2007



강의촬영 스튜디오



원광디지털대학교 익산캠퍼스

년 교육과학기술부가 주관한 '원격대학 종합평가'에서 '종합 우수 대학' 선정, '2013 사이버대학 역량평가'에서 전제영역 최고등급을 받은 바 있다.

### ◆입학생 98% 장학 혜택

원광디지털대는 웰빙건강·한국문화·실용복지 분야의 3개학부 17개 특성화학과를 운영한다. 특별한 전공을 통해 세계 속에서 활동하는 차별화된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고 있다. 학과는 ▲웰빙건강학부(한방건강학과, 한방미용예술학과, 요가명상학과, 웰니스문화관광학과) ▲한국문화학부(전통공연예술학과, 한국복식과학학과, 차문화경영학과, 한국어문화학과, 동양학과, 원불교학과, 태권도스포츠재활학과) ▲실용복지학부(사회복지학과, 상담심리학과, 언어치료학과, 경찰학과, 부동산학과, 얼굴경영학과)로 구성돼 있다.

원광디지털대는 낮은 등록금과 다양한 장학 혜택으로 학생들의 부담을 크게 낮췄다. 매년 입학생의 98% 이상이 장학 혜택을 받을 만큼 탄탄한 장학 제도가 장점이다. 교육부 대학정보공시 사이트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2019학년도 기준 연간 학생 1인당 장학금액은 사이버대학교 중 최고 수준인 194만원이다.

장학 제도로는 주부 및 직장인, 만학도 장학금(만56세 이상), 다문화 장학금, 새터민 장학금 등 다양하다. 특히 전문(실업)계고, 마이스터고, 대안고교, 방송통신고 졸업(예정)자에게는 '특성화고 장학금'을 통해 수업료 30%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검정고시 졸업생에게도 동일하게 수업료 30%를 감면해주는 '검정고시 장학금'도 마련돼 있다.

원광디지털대는 최고 시설을 자랑하는 전국 6개의 지역캠퍼스(서울, 대전, 대구,



김규열  
원광디지털대 총장

부산, 익산, 광주)를 갖추고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지원한다. 학생들은 지역캠퍼스 모임을 통해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고 실무능력도 갖추 수 있다.

### ◆'온라인 입학 설명회' 참석 인증사진 제출하면 전형료·입학금 전액 감면 혜택

원광디지털대는 오는 12월 1일(화)부터 2021년 1월 12일(화)까지 2021학년도 1학기 신입생을 모집한다.

지원서 작성은 입학 홈페이지(go.wdu.ac.kr)에서 가능하며 서류는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해서 제출할 수 있다. 모든 입학지원 절차(지원서작성, 전형참여, 서류제출 등)를 PC 뿐 아니라 스마트폰에서도 진행할 수 있다.

지원 자격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이거나 대학교 수료, 학사, 석사 등의 학력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다. 입학 전형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일반전형, 학사학위 소지자가 지원할 수 있는 학사편입학전형 외에 산업체전형, 군위탁전형, 장애인전형, 기회균등전형, 북한이탈주민전형, 재외국민 및 외국인전형 등이 있다. 입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입학 홈페이지(go.wdu.ac.kr)나 문의전화(1588-285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현진 기자

# 국내 첫 온라인 공학대학원... 한양대 공대와 교류 '활발'



사이버대학 중 학생수, 전임교원 수 1위  
졸업생 다수 한양대 등 명문대학원 진학  
내달 8일까지 모집... 수능·내신 미반영

한양사이버대는 1939년 국내 최초 공학대학을 설립한 한양대의 학풍인 '실용학문'을 이어받아 2002년에 개교했다. 현재 11개 학부 39개 학과(전공)에 재적학생 1만 6174명(2020년 정보공시기준)으로, 사이버대학 중 학생 수가 가장 많다.

이처럼 학생들이 한양사이버대를 찾는 이유는 따로 있다. 바로 학생 중심의 탄탄한 교육이 뒷받침되기 때문이다. 한양사이버대는 국내 사이버대학 가운데 학생 수뿐 아니라 전임교원 수 역시 1위를 차지했으며, 전임교원의 강의 담당비율 역시 가장 높다.

지나해 9월에는 국내 사이버대 최초로 수강관리시스템(LMS)을 세계적 표준에 맞게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이를 통해 최대 1000명까지 동시 접속해 화상세미나를 할 수 있으며, 모바일이나 태블릿, PC 등 학생 편의에 따라 강의 참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졸업 이후 행보도 돋보인다. 한양사이버대 졸업생의 약 10%가 한양대 등을 비롯한 주요 명문대학원에 진학한다. 체계적인 교육과 우수한 교수진, 철저한 학사관리 덕분에 학생들이 대학원 진학 시 높은 평가를 받기 때문이다. 2002년 개교한 이래 등록금을 단 한 번도 인상하지 않은 데다 학생 중



한양사이버대 전경

88%가 1인당 약 145만원 상당의 장학금 혜택을 받고 있어 학생의 등록금 부담감까지 낮췄다.

### ◆국내 최초 온라인 공학대학원 설립... 한양대 공대와 교육 협력

한양사이버대는 2010년 처음 대학원을 설립한 이래 꾸준히 발전해 현재 6개 대학원 14개 전공에 재적생 940명(2020년 정보공시 기준)으로 사이버대학원 중에서는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전교생 1만 6174명으로 국내 가장 많은 학생을 보유한 한양사이버대 대학원은 최근 교육부로부터 공학대학원인 미래융합공학대학원 설립 인가를 받아 교육 관계자들의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국내 사이버대학에서 공학대학원을 설립하는 것은 한양사이버대가 처음이다.

한양사이버대 미래융합공학대학원은 정원 90명을 선발할 계획(특별전형은 정원 내 10% 내에서 선발)이다. 1차 전형은 서류 전형으로 자기소개 및 연구 계획서(40점)와 학부 성적(10점)을 바탕으로 선발하며, 2차 전형은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1차 전형 성적(50점)과 토론형 면접(50점)을 할 계획이다.

지나해 차세대정보화시스템사업의 일환으로 도입한 '시스코 웹엑스 솔루션'을 통해 현재 대학원 강의에서는 화상 세미나를 진행 중일뿐더러 현장감이 느껴지는 강의 녹화와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화상 강의를 병행할 수 있도록 멀티미디어 강의실을 새로 구축했다. 한양공대 교육 교류 협력에 따른 공유실 및 실습실도 운영할 예정이다.



전혜진  
한양사이버대 입학처장

온라인 석사과정인 한양사이버대학교대학원은 10월 26일(월)부터 12월 8일(화)까지 2021-1학기 석사 신입생 모집을 진행하고 있다. 미래융합공학대학원 등 6개 대학원

12개 전공에서 440명을 모집한다. 또한 12월 1일(화)부터 2021년 1월 12일(화)까지 한양사이버대 신·편입생 모집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양사이버대 신입생 입학 지원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또는 동등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전문대학 졸업자나 4년제 대학교 수료 이상, 2년제 대학 졸업자는 2~3학년 편입학도 가능하다. 일반전형 외 산업체위탁전형, 군위탁전형, 북한이탈주민전형, 특수교육대상자전형 등의 다양한 특별전형도 마련됐다.

한양사이버대는 수능 성적 및 내신 성적으로 합격 여부를 판가름하지 않는다.

다만, 온라인으로 자기소개 및 향후학업계획(70점)을 작성하고, 간단한 문제를 푸는 방식인 학업수행검사(30점)로 학생을 선발한다. 한양사이버대 입학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학부 go.hycu.ac.kr / 대학원 gsgo.hycu.ac.kr)를 참고하면 된다. 입학문의는 전화(학부 02-2290-0082 / 대학원 02-2290-0700)로 가능하다. /이현진 기자



# “내 업무에 AI 어떻게 적용될까... 미래 사회 엿본 시간”

뉴테크포럼 참가자 이구동성 “매년 참가... 디지털 전망 감사” “일상에 스며든 인공지능, 실감”



조종연 한국SW/ICT 총연합회장이 25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메트로신문 주최로 열린 '2020 뉴테크놀로지 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25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가 주최한 '제5회 뉴테크놀로지포럼'은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된 상황 속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현장에 방문하는 등 AI에 대한 메트로신문 독자의 열기가 느껴진 행사였다.

부동산 업체를 운영하는 김상훈 독자는 “2017년부터 메트로신문의 뉴테크포럼에 매년 참가했다”며 “메트로신문이 학계와 업계, 재계를 망라한 강연자를 초대해 매년 디지털에 대한 전망을 해줘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AI와 바이오 기술 등에 대한 큰 선이 그려지고 있는 상황 속 많은 부분에 AI가 활용되고 있는데 부동산 영역에서도 단순 거래에 AI가 쓰이기도 하지만 여러 시설 운영에도 도입되고 있다”며 “전문가의 생각과 미래 전망에 대한 메시지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반도체 업계에서 일하는 강강훈 독자는 “반도체 회사에 다니는데 AI와 직접적 연관은 없지만 공부하는 차원에서 왔다”며 “작년에는 메트로신문 포럼에 왔었고, 계속 관심 있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AI가 일상에 다가왔다는 것이 와닿는다”며 “강연을 듣다 보니 어떤 혁신적 기업이 나오고 있는지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부분이 앞으로 기대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율주행차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마지막 강연에서

윤리적 딜레마를 다룬 게 인상적이었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기술 발전이 빠른 만큼 AI 윤리와 관련된 문제도 생각해 보게 됐다”고 밝혔다.

문화재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심현균 독자는 “AI에 대한 흥미가 있어서 공부하던 중 메트로신문 포럼에 참가하게 됐다”며 “많은 강연을 들으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접목시켜볼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포럼이 끝난 후에는 “옛날부터 AI에 대한 흥미가 있었는데, 몇십년이 지난 후 들어보니 AI 기술이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발전했다는 것을 느꼈다”고 밝혔다.

경기연구원에서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인 김영룡 독자는 “실

제 산업 현장에서 AI를 활용하는 사례를 보고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다”며 “몇년전까지만 해도 빅데이터나 AI를 어떻게 쓸까 하는 얘기를 했다면 이번 뉴테크포럼에서는 비즈니스 모델이나 목표, 결국 AI가 도구와 수단인데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지 이야기해준 점이 인상 깊었다”고 소개했다.

그는 “유동인구와 카드 활용 등 빅데이터를 연구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침체된 부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사실 연구는 기초 플랫폼 구축 등 산업과 목표가 다르지만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는데 도움이 됐다”고 느낀 점을 밝혔다. /김나인·구서윤기자 yuni2514@metroseoul.co.kr

## “빅데이터 활용 AI, 경쟁력 중 하나” “AI 활성화 위한 SW교육 강화해야” “데이터 중심 사회로 빠른 이동 필요”

축사 이원욱 과방위원장

올해로 다섯번째를 맞는 메트로경제의 '2020 뉴테크놀로지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전 지구가 멈춰버린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인류의 진보는 막을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온 세계에서 '코로나19' 모범사례로 뽑고 있습니다. 위기와 함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 것입니다. 또한 비대면 서비스의 확대가 사회 전반에 진화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이 경쟁력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선도경제로 발돋움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오늘 포럼이 AI 시대의 혁신을 이끌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혜택이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 힘을 보태겠습니다.

/김나인 기자 silkni@

축사 조종연 한국SW/ICT 총연합회장

제가 올해 시인 등단을 했는데, 제 이름을 구글에서 검색해보니 사진과 이름은 '조종연'으로 나오고, 프로필에는 1991년도에 작고한 아동문학 작가의 정보가 나와서 수정 요청을 했습니다.

AI가 도시, 교통, 의료 제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면서 인력이 많이 필요한데 뽑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초중고등학교부터 SW 실용 창의 교육 시간을 늘리고 강화해야겠습니다.

둘째로, 디지털 뉴딜 사업으로 빅데이터, 데이터 바우처 등 데이터 경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 산업에 걸쳐 개인 데이터 이동권 의무화를 강화하고, 금융



산업의 오픈뱅킹과 같이 오픈 API 디지털 이동권을 강화하면 선진 국가처럼 마이데이터 산업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는 입찰 평가의 공정성 부분을 강화하고, 예산제도를 혁신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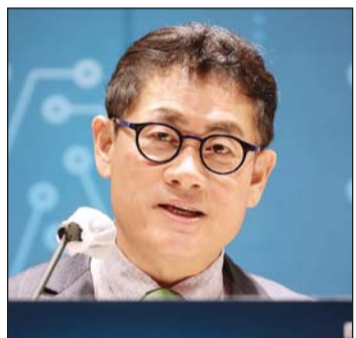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의료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비대면 원격의료 사업 분야를 더욱 활성화시켜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서윤 기자

개회사 이장규 메트로미디어 대표

메트로미디어와 메트로경제가 뉴테크놀로지 포럼을 개최한 것은 올해가 5번째, 인공지능(AI)을 주제로 한 것은 4번째가 됐습니다.

지금 사회는 어떤 이슈든 여야, 진보보수, 세대 담론 등 진영논리에 따라 이분화돼 있습니다. 이럴 때 감정이나 진영논리, 이념 등 정치적 배경을 빼고 빅데이터를 통한 객관적 실체를 바탕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의사결정하는 사회, 그런 사회가 바로 '빅데이터를 품은 인공지능'이 펼쳐 바람직한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사회, 정치, 경제적 측면에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의 발달이 가져올 긍정적 모습은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한 합리적 의사결정이 일반화되는 사회일 것입니다. 데이터에 기반한,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의사결정은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포럼이 그런 데이터 사회로 가는 데 조금이나마 일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승호 기자 bada@

## “인공지능, 일자리 위협 아닌 창출”

VIP 티타임 이모저모

◆“AI 아나운서, 모델링 위해 만 여개 문장 읽어야”

25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열린 메트로신문 '제5회 뉴테크놀로지 포럼'에 앞서 진행된 VIP 티타임에서는 최근 이슈가 됐던 AI 아나운서 등 인공지능 산업에 대한 뜨거운 관심 모여, 전창배 한국인공지능 윤리협회(KAIEA) 이사장은 “김주하 아나운서의 모델링을 직접 한 것이냐”고 질문. 이에 전석원 머니브레인 이사는 “그렇다. 모델링하기 위해서는 평균 1만1000개의 문장을 읽어야 한다. 그런 읽는 모습을 촬영해

움직임 등을 데이터화하고 학습시켰다. 처음에는 일주일 가까이 걸렸지만 점점 줄어서 지금은 빠르면 2~3일 정도로도 단축 가능하다”고 밝혔다.

◆“움직임 구현, 감정표현 등 인공지능 아직 어려움 있어”

전창배 KAIEA 이사장은 “영화배우 등 다양한 분야나 인물에도 인공지능 적용이 가능하냐”고 질문. 이에 전석원 머니브레인 이사는 “아직은 다양한 분야에 인공지능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먼저, 움직임을 합성하고 구현하는 것이 어렵다. 두 번째는 감정표현이다. 감정적인 단어가 들어갔을 때 이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해.

◆“인공지능, 일자리 위협 아닌 고용창출 효과 있어”

전석원 머니브레인 이사는 “인공지는 아나운서는 사실상 전달만 하는 역할이다. 아나운서 한 명을 모델링하기 위해서는 5~6명의 팀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보다 더 많은 인공지능을 만들게 되면, 그만큼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 이경전 경희대 교수도 “AI가 일자리를 만든다. 인공지능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 하지만 옛날에도 자동차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했었다”고 답해. 이에 전창배 KAIEA 이사장은 “하지만 시간의 문제는 있는 것 같다. 일단



25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메트로신문 주최로 열린 '2020 뉴테크놀로지 포럼' 참석자들이 담소를 나누고 있다. /손진영 기자

기존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은 맞기 때문이다.

◆“인공지능 스피커, 키즈 콘텐츠·독거노인 구조 등 순기능”

이경전 교수는 “인공지능 스피커에 있어서 새로운 장점을 발견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혀. 이에 정영조 KT 마스터 P

M은 “최근 아이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아이들의 대화 패턴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최적화된 콘텐츠를 제공하고 칭찬해, 축하서비스도 인기”라고 전했. 이에 전창배 KAIEA 이사장은 “인공지능의 또 다른 장점으로 예컨대 기가지니를

독거노인에게 나눠주어, 목숨을 구한 사례가 많다. 복지 차원에서 응급상황시 구조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무료로 제공했다. 이것은 인공지능의 순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인공지능 스피커의 역할 강조하기도. /김수지·백지연 기자 sjkim2935@



[라이프] 롯데마트 새벽배송 확대 경기남부·부산까지



Life

[사이버대학 입시기이드] 언택트시대 사이버대학 급부상 L2·L3·L4



# “AI, 4차산업 핵심요소 될 것... 미래 사업 모델은 ‘밸류 엔진’”

기조강연 이경전  
경희대 교수

### 가치있는 목표 설정·확대 등 인공지능 기업 성장전략 제시

인공지능(AI)이 4차산업혁명을 주도할 키워드로 떠오른 가운데, 인공지능 기업이 꼭 갖춰야 할 전략이 제시됐다.

경희대학교 이경전 교수는 25일 열린 '2020 뉴테크놀로지포럼'에서 '인공지능 기업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 사례와 이론'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펼쳤다.

이 교수는 우선 인공지능을 기계와 인간, 환경을 지능적으로 만드는 방법론이라고 정의했다. 지능적이란 기업이나 사회의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활동하는 능력을 가리키는 것으로, 인공지능은 적절한 환경과 인프라를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사람을 대체하는 개념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경전 경희대학교 교수가 25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메트로신문 주최로 열린 '2020 뉴테크놀로지 포럼'에 참석해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 손진영기자 son@

인공지능은 4차산업혁명 시대를 대표하는 비즈니스 모델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1995년 인터넷이 보급되기 이전에는 예상조차 못했던 플랫폼 사업이 3차산업혁명을 대표하게 된 것처럼, 4차산업혁명에는 인공지능이 사업에 핵심 요소로 주목받고 있다는 것. 2016년 세계 경제포럼에서 4차산업혁명이 주창되고 같은해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 대결이 벌어지면서 인공

지능 기업들이 탄생하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이같은 인공지능 비즈니스 모델을 '밸류 엔진'이라고 명명했다.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넣으면 행동으로 변환해준 다며, 연료를 넣으면 운동에너지가 만들어지는 엔진에 비유했다. 3차 산업혁명까지 비즈니스 모델이 밸류체인에서 밸류 네트워크로 발전했던 것과 같이, 미래 비즈니스 모델은 밸류 엔진

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인공지능 기업은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것만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다고 내다봤다. 플랫폼 사업이 그랬던 것처럼 인공지능도 새로운 수익 창출이 가능한데다가, 인공지능을 연동해 생산성을 극대화하려는 기존 기업들과도 협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공지능 기업이 성장하기 위한 5가지 전략도 제시했다. ▲데이터와 지식 확보 ▲추론과 최적화 ▲가치있는 목표 설정 및 확대 ▲인간과 AI 협력 ▲유지 및 운영 등이다. 이 중 가치있는 목표 설정 및 확대가 밸류 엔진, 지능적인 인공지능이 해야 하는 업무라고 봤다.

이어서 이 교수는 우수한 인공지능 스타트업 사례를 소개했다. 어떻게 5가지 주요 전략을 추구하는지, 그리고 수익을 창출하는지에 초점을 맞췄다.

기업용 메시지 서비스 기업 센드버드와 교육 인공지능 솔루션

기업 루이드는 적절한 시장을 공략한 사례로 꼽혔다. 센드버드는 상담이 필요한 기업을, 루이드는 시험을 보는 학생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해 상업적 인 효과를 거두는데 성공했다.

엑스레이 사진으로 뼈 나이 측정 기술을 개발한 뷰노는 수익 창출은 물론이고 데이터 확보, 최적화까지 동시에 수행하는 모델을 소개했다. 병원과 공동 사업을 통해 많은 엑스레이를 분석하면서 기본 데이터를 얻고, 인간인 의사가 내려준 최종 결정을 또 학습하면서 정확성을 높이는 방식이다. 이렇게 개발한 인공지능은 공동으로 특허를 출원해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축구 경기를 촬영해 분석하고 솔루션을 제시하는 비프로일레븐은 판매 상품을 인공지능뿐 아니라 IoT 기기로도 확장한 모델이다. 경기 중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소 10여대 카메라와 장비 등이 필요한데, 이 들까지도 인공지능 사업 영역으

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재활용품을 수거해 판매하는 수퍼빈은 인공지능과 인간이 공존하는 사례로 제시됐다. 단순히 재활용품을 거래해 환경을 보호할 뿐 아니라, 쓰레기를 수거하거나 선별하는 일자리를 새로 만들어냈다는 설명이다.

논란 거리도 제시했다. 웨이모는 완전 자율주행을 개발해 택시로 상용화하는 수준에 이르렀지만, 데이터를 자체 수집하고 고성능 센서를 사용하는 탓에 비용 문제에 직면해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소비자 데이터를 이용하고 저렴한 센서를 사용하며 희생을 발판 삼아 성장하는 테슬라와 비교했다.

인공지능이 인간과 공존해야 한다는 점도 보여줬다. GPT-3는 전세계 모든 영어 문서를 학습해 질문에 답하는 등 문장을 생성할 수 있지만, 여전히 실수가 잦고 완전 자동화가 불가능해 인간 개입이 불가피하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 “제2의 아마존·네이버 되려면 3년내 두 가지 가치 확보해야”

강연 이경일  
솔트룩스 대표

“현재 AI에 대한 시장과 사회의 기대가 커지면서 거품이 형성되는 시기인데, 70~80%의 스타트업은 생존하지 못할 것이고, 거기에서 살아남은 기업만이 제2의 아마존, 네이버가 되어서 시장을 지배할 것이다.”

이경일 솔트룩스 대표는 AI 기술의 현재 위치를 통해 AI 기업이 다가오는 미래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많은 AI 스타트업이 살아남기 위해선 3년 이내에 비용을 낮추거나, 품질을 높이거나, 속도를 개선하는 것 중 탁월한 두 가지의 가치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 애플은 최고 품질의 제품을 시장에 빠르게 내놓는다”며 “하나의 가치만 유지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경일 대표는 “세 가지의 가치 외에도 자율주행차, 게임, 엔터테인먼트 등 사람에게 편의와 즐거움을 주는 가치를 높이거나 스마트시티·농업·환경처럼 국가 단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가치를 추구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인공지능의 진화과정도 언급했다. 그는 “1세대 AI는 지식표현을 하는 명시적이고 연역적인 추론이 발달했다면, 2세대 AI는 기계학습을 통한 암묵적·귀납적 추론을, 3세대 AI는 더 복잡한 모델로 연역적 추론을 하는데 훨씬 적은 연산량을 사용하면서 높은 성과를 낼 수 없을까 고민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3세대 기술로 인공지능 콜센터를 구현했다”며 “챗봇의 질의응답 품질 수준이 40~50%인 것과 달리 이 엔진은 94%에 달한다”고 소개했다.

한편 AI 기술이 복잡해 데이터를 조금 더 적은 데이터로 학습하면서 인간을 닮아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언어·음성, 시각, 예측, 공간, 운동, 예 술 지능 등 다양한 분야로 발전하고 있다. /구세윤 기자 yuni2514@

## “가치 있는 빅데이터 활용 거버넌스 구축이 키포인트”

강연 정영조  
KT Master PM

“의미있는 데이터가 시스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내재화돼야 가치를 만들고 데이터를 고도화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수많은 시행착오가 뒤따라야 한다.”

정영조 KT 마스터PM이 25일 열린 '2020 뉴테크놀로지포럼'에서 'KT의 AI 사업과 빅데이터 기반 사회가치 창출'을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정영조 마스터PM은 최근 'AI 컴퍼니'를 선언한 KT의 AI 관련 행보와 전략을 소개했다.

정 마스터PM은 “기가지니는 KT의 강점인 인터넷TV(IPTV)와 사물인터넷(IoT)을 결합해 270만 가입자를 확보하며 성장하고 있다”며 “융합에서 개인화에 초점을 맞춘 서비스 진화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기가지니는 코로나19 이후 집에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올 2·4분기 기준 보이스 UI 사용량이 작년 동기 대비 74% 증가했다.

그는 “서비스 이용량이 늘면서 데이터가 많이 쌓이고 있다. 서비스가 실행되고 데이터를



써야 AI 엔진이 고도화된다”며 “사용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더렉션을 할 수 있고 의사결정이나 예측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엔진도 고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요한 것은 철저한 준비와 변화를 통한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이라고 강조했다.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이에 맞는 가치를 찾아 사업이나 내부 서비스에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해서 축적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정 마스터PM은 “실제 AI를 적용하는데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며 “측정을 많이 해야 하는 경험과 노력을 통해 시스템을 구축하면 가치를 찾아 의미있는 곳에 데이터를 활용하는 등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

## “AI 기술과 윤리는 ‘동반자’ 선하고 안전하게 사용해야”

강연 전창배  
KAIEA 이사장

“인공지능 기술과 윤리는 함께 조화롭게 가야 하는 동반자 관계다. 인공지능을 만들고 사용하는 주체는 인간이니, 결국 이를 선하고 안전하게 사용하는 것도 인간에게 달렸다.”

‘빅데이터 시대의 인공지능 윤리’를 주제로 강연한 전창배 한국인공지능윤리협회 이사장은 인류의 미션은 이제 선한 인공지능을 만드는 것으로 명확해졌고, 독일, 일본, 캐나다 등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전창배 이사장은 “국가뿐만 아니라 주요 IT 기업들에서도 이 같은 인공지능 윤리 지침을 발표했다. 하지만 아직 민간이나 대학 차원에서는 아직 좀 부족한 게 현실이다”라며 “한국인공지능윤리협회의 윤리헌장을 보면 세밀하게 규정해놨다. 예컨대, 제1장 제1조 인공지능은 인간을 편리하고 행복하게 하기 위한 도구다, 제5조 인공지능은 인간의 선한 본성을 추구해야 한다 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공지능 윤리 관련 “두 가지 오해가 있다. 인공지능 윤



리는 인공지능 기술 발전을 막겠다는 것이 아니다.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윤리적인 제품들을 개발 및 생산해 소비자들에게 제공해야 기업들도 사랑받을 것이다”라며 “인공지능 윤리가 윤리의식이 들어간 인간과 똑같은 AI를 만들겠다는 것이냐는 오해가 있는데,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윤리 알고리즘을 만드는 것은 맞지만, 인간과 똑같은 또 다른 존재를 만드는 것은 윤리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인류의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 이사장은 “강대국에서는 현재 길러 로봇을 다수 개발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인공지능이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일을 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

Big | 더 큰 믿음으로

B



지역을 넘어 글로벌 네트워크로 | Network

N



Knowhow | 시대를 리드하는 금융 노하우로

K



희망을 잇다  
행복이 잇다

희망을 주는 행복한 금융 - BNK금융그룹

**BNK**

BNK 부산은행 BNK 경남은행 BNK 캐피탈 BNK 투자증권 BNK 저축은행  
BNK 자산운용 BNK 신용정보 BNK 시스템 BNK 벤처투자 BNK 씨농구단